#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南星祐* · 鄭在永**

## 1. 序言

『舊譯仁王經 上』 5張 落張(2장, 3장, 11장, 14장, 15장)은 한문의 원문 좌우 행간에 작은 글씨로 깨끗하게 吐가 기입된 석독구결 자료이다. 釋讀口訣 자료인 『舊譯仁王經 上』은 1973년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태봉리 文殊寺 소장의 금동여래좌상 복장물 중 하나이다. 이것은 木版本으로 25행, 1행 17자본이다. 절첩본의 흔적이 남아 있다. 『舊譯仁王經 上』의 판식은 고려대장경의 판식과는 계통이 다른 것이다. 이 『舊譯仁王經』을 高麗大藏經板의 구역인왕경과 비교해 보면 본문 중 글자의 부분적인 출입이 있고 자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釋讀口訣 자료인 『舊譯仁王經』에는 花, 無, 爾, 萬, 彌 字 등으로 쓰고 있음에 반하여, 高麗大藏經板에는 각각 華, 无, 尒, 万, 弥 등으로 쓰여 있어 차이를 보인다.

『舊譯仁王經』은 최초로 발굴된 석독구결 자료로 국어사 연구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자료이다. 이 자료의 발굴로 인하여 국어사 연구에 새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동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舊譯仁王經 上』은 심재기(1975)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南豊鉉·沈在箕(1976), 李東林(1982), 南豊鉉(1986), 金永萬(1986), 김두찬(1997) 등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이 외에도 여러 논문들에서 『舊譯仁王經 上』과 관련된 구결의 문자 체계와 구결 吐들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본고는 『舊譯仁王經』과 관련된 그 동안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舊譯仁王經』 구결문의 문자 체계와 표기법을 밝히고, 이 구결문을 15세기의 정음 표기로 轉寫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釋讀口訣 表記法의 특징을 살펴보고, 『舊譯仁王經』에 사용된 구결자들의 문자 체계를 다른 석독구결 자료들의 구결자들과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에 사용된 몇몇 특징적인 구결 吐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舊譯仁王經』 구결문 전체를 15세기의 국어 표기로 轉寫한다. 『舊譯仁王經』 석독구결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註釋을 달도록 한다.

## 2.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表記法

2.1. 釋讀口訣은 한문의 각 구성소마다 吐를 달아 우리말로 새겨 읽은 번역문이다. 釋讀口訣의 독법과[1] 표기법에 대해서는 심재기(1975), 南豊鉉·沈在箕(1976), 李東林(1982) 등과 남풍현 교수의 일련의 논문들에서 많이 다루어진 바 있다. 특히 南豊鉉(1986)과 南豊鉉(1993a)에서는 석독구결의 특징적인 표기법인 대표음의 전용, 末音添記, 頭音添記, 全訓讀表記 그리고 省略表記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舊譯仁王經』 구결문의 표기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석독구결과 관련

1) 석독구결의 성격과 독법에 대해서는 鄭在永(1997a)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석독구결 표기법의 일반적인 특징부터 먼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실제 자료 즉, 『舊譯仁王經』에 나타나는 첫 문장을 통하여 석독구결의 표기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자료 1>

A: 信行ㄴ具足ᄉᆞᆫᄀᆞᆫ復ᄉᆞᆫᄀᆞ有ᄒᆞᆫᄀᆞᆫ五道ㄴ一切衆生ㅣ、復ᄉᆞᆫᄀᆞ有ᄒᆞᆫᄀᆞᆫ他方ㄴ不ᄋᆞᆯㅣᄒᆞㄴ 可ᄒᆞᆫᄀᆞ、量ᄂᆞᄒᆞ、衆、

B: 信行ㄴ 具足ᄉᆞᆫᄀᆞᆫ 復ᄉᆞᆫᄀᆞ 五道ㄴ 一切 衆生ㅣ 有ㄴᄒᆞᆫᄀᆞᆫ 復ᄉᆞᆫᄀᆞ 他方ㄴ 量ᄂᆞᄒᆞ 可ㄴᄉᆞᆫᄀᆞ 不ᄋᆞᆯㅣᄒᆞㄴ 衆 有ㄴᄒᆞᆫᄀᆞᆫ <舊仁 2:1-2>

B′: 信行乙 具足爲示彌 復爲隱 五道叱 一切 衆生是 有叱在彌 復爲隱 他方叱 量乎音 可叱爲隱 不知是飛叱 衆 有叱在彌

C: 信行ᄋᆞᆯ 具足ᄒᆞ시며 ᄯᅩᄒᆞᆫ 五道ㅅ 一切(일체) 衆生(즁싱)이 잇겨며 ᄯᅩᄒᆞᆫ 他方ㅅ 量홈(혜아룜) 짓ᄒᆞᆫ 안디이ᄂᆞᆺ 믈(무리) 잇겨며

D: 신행을(淸信行을) 구족하시며 또 五道의 모든 중생이 있으며 또한 他方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있으며

<자료 1>에서[2] 확인 할 수 있듯이, 釋讀口訣은 한문의 각 구성소마다 토를 달아 우리말로 새겨 우리말 순서로 읽은 번역문이다. 우리말 어순으로 조정하여 읽는 표시는 左右吐 표기법과 역독점으로 표시한다. B행의 문장이 바로 한문의 원문을 釋讀口訣로 번역한 것이다.

석독구결문인 B의 '信行ㄴ 具足ᄉᆞᆫᄀᆞᆫ 復ᄉᆞᆫᄀᆞ 五道ㄴ 一切 衆生ㅣ 有ㄴᄒᆞᆫᄀᆞᆫ 復ᄉᆞᆫᄀᆞ 他方ㄴ 量ᄂᆞᄒᆞ 可ㄴᄉᆞᆫᄀᆞ 不ᄋᆞᆯㅣᄒᆞㄴ 衆 有ㄴᄒᆞᆫᄀᆞᆫ'를

2) <자료 1>의 A는 원문의 상태를 가로쓰기 체제로 옮긴 것이다. 편의상 左吐를 윗첨자로 표시하였다. B는 釋讀口訣을 풀어서 釋讀한 것이다. 우리말로 읽은 것이다. B′는 口訣字의 原字를 추정하여 표기해 본 것이다. 구결자를 原字로 바꾸어 표기하면 바로 鄕歌의 표기법과 유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C는 釋讀口訣을 正音 표기로 재구하여 읽은 것인바, 借字吐의 음을 15세기 국어의 正音 표기로 추정하여 읽어 본 것이다. D는 현대어 번역이다.

통하여 석독구결의 표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信行올 具足ᄒᆞ시며'는 한문 원문의 '信行具足'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명사구 '信行'에 대격조사 '-올'을 붙이고, 타동사 '具足ᄒᆞ-'에 존경법 선어말어미 '-시-'와 접속어미 '-며'를 통합한 우리말 문장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 경우 '信行올'과 '具足ᄒᆞ시며'의 '信行'과 '具足'은 그 당시 우리 한자음으로 음독한 것이다. 이렇게 음독한 단어들은 대부분은 그 당시의 한자어라고 할 수 있다. 한자어는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 뿌리를 내려왔다.

일반적으로 석독구결문에 기입된 토를 보면 대체로 음독해야 할 것인지 석독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具足ㅅ디ᄀᆞ'와 같은 'Xㅅ-' 구성의 경우 'X'가 2음절 이상일 때에는 음독해야 한다. 'Xㅅ-' 구성에서 'X'가 일음절 한자인 경우에도 音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맥과 그 한자에 해당하는 우리 어휘에 따라 석독할 수도 있다. '復ㅅ-'과 '量ㅅᄒᆞ'이 바로 'Xㅅ-' 구성의 어휘 중 'X'에 해당하는 것이 일음절 한자로 나타난 것이다. 전자는 'ᄯᅩᄒᆞᆫ', 후자는 '量홈'이나 '헤아롬' 정도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석독구결에서는 토가 기입되어 있거나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2음절 이상의 한자어는 모두 음독한다. 단 단음절 한자인 경우에는 석독구결문의 문맥과 그 한자에 해당하는 그 당시 우리말 어휘에 따라 音讀하거나 訓讀할 수 있다. 석독구결은 이 외에도 다양한 표기 방식으로 음독할 어휘와 훈독할 어휘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다. 훈독할 어휘에 대한 표기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바, 末音添記나 頭音添記, 全訓讀表記 등으로 표기된 것은 훈독한다. 그리고 '不矣ㅣㅌᄂᆡ'이나 '有ᄂᆞᆫᄀᆞ'에서의 '矣'나 'ᄂᆞᆫ'과 같이 해당 어휘의 末音이나 末音節을 표기하는 경우 등으로 표기된 것도 訓讀해야 한다.[3] 이 밖에 뜻으로 새겨

3) '有ᄂᆞᆫᄀᆞ'(잇겨며)는 존재동사 어간 '잇-'에 선어말어미 '-ᄂᆞᆫ-'(-겨-)와 접속어미 '-ᄀᆞ'(-며)가 통합한 것이다. '有ᄂᆞᆫᄀᆞ'의 '有ᄂᆞᆫ-'은 존재동사 '잇-'을 표기한 것이다. 즉 '有ᄂᆞᆫ-'의 'ᄂᆞᆫ-'은 존재동사 어간 '잇-'의 말음을 표기한 것으로 훈독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를 末音添記와는 구분하여

읽어야 할 한자를 지정하여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훈독한 어휘는 대체로 우리 고유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석독구결문인 B를 15세기의 정음으로 표기한 것이 C 즉, '信行ᄋᆞᆯ 具足ᄒᆞ시며 ᄯᅩ ᄒᆞᆫ 五道ㅅ 一切(일체) 衆生(즁싱)이 잇겨며 ᄯᅩᄒᆞᆫ 他方ㅅ 量홈(헤아룜) 짓ᄒᆞᆫ 안디이ᄂᆞᆫ 믈(무리) 잇겨며'이다. 석독구결은 한문의 각 구성소마다 토를 달아 우리말로 새겨 읽을 수 있도록 표기한 것이다.

석독구결에서는 같은 구문이나 같은 吐들이 반복될 경우 口訣吐 전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으로 吐의 일부를 생략하여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ㅇᆞ'(ᄒᆞ-)나 계사 '-ㅣ-'(-이-)가 생략되어 표기된 경우가 많다. 구결문에서의 생략표기는 대체로 그 문맥 안에서 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생략된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석독구결에서의 생략표기는 그 나름대로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 시대의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釋讀口訣의 생략표기를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석독구결 전체의 표기 양상과 고려 시대의 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석독구결의 생략표기가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金光明經』이나 『華嚴經』 등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 비해 『舊譯仁王經』에는 생략표기가 많이 보이지 않는 편이다.

이 외에도 석독구결의 표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풍현 교수가 지적한 바 있는 대표음의 전용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대표음의 전용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의할 점은 구결 문자 즉 구결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口訣字들은 우리의 借字表記 전통 속에서 창조된 우리의 문자이다. 구결자는 모두 音假字나 訓假字로서 우리말의 일정한 음절이나 음소를 나타낸다. 구결자는 훈민정음과는 달리 우리말 소리를 완벽하게 다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일정한 형태를 고정

---

이해하고 있다.

해서 표기하는 일종의 기능문자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석독구결이나 고려말 음독구결 자료를 가지고 음운사적인 연구를 하거나 구결자의 대표음 전용 문제를 논의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석독구결에서 문법 형태 등을 표기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능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의 다양한 이형태들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하나의 구결자로 표기하기 때문이다.

2.2. 『舊譯仁王經』 구결문에 사용된 문자 체계와 구결자의 음가 추정 및 기능에 대해서는 남풍현(1986)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석독구결이나 음독구결에 사용된 구결자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舊譯仁王經』에 나타나는 口訣字의 文字 體系를 다른 釋讀口訣 자료의 문자 체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舊譯 | 華疏 | 華嚴 | 金光 | 瑜伽 | 原字推定 |
|---|---|---|---|---|---|---|
| (1) ㄱ/기 | 八 | 八 | 八 | 八 | 八 | 只 |
| (2) 거 | 去 | 去 | 去 | 去 | 去 | 去 |
| (3) 겨 | 在 | 在 | 在 | 在 | 在 | 在 |
| (4) 고 | 口 | 口 | 口 | 口 | 口 | 古 |
| (5) 과 | 人 | 人 | 人 | 人 | 人 | 果 |
| (6) 곰 | 尒 | 尒 | 尒 | 尒 | 尒 | |
| (7) 곧 | 遣 | | 遣 | | | 這 |
| (8) ㄴ/온 | 冂 | 冂 | 冂 | 冂 | 冂 | 隱 |
| (9) 나 | 乃 | 乃 | 乃 | 乃 | 乃 | 那 |
| (10) 노 | 奴 | 奴 | 奴 | 奴 | | 奴 |
| (11) 누 | 卜 | 卜 | 卜 | 卜 | 卜 | 臥 |
| (12) 니 | | 尼 | 尼 | | 尼 | 尼 |

| | | | | | | |
|---|---|---|---|---|---|---|
| (13) ᄂᆞ | ᄂ | ᄂ | ᄂ | ᄂ | ᄂ | 飛 |
| (14) ᄂᆞᆯ | | | 斤 | | 斤 | 斤 |
| (15) 다 | ㅣ | ㅣ | ㅣ | ㅣ | ㅣ | 如,多? |
| (16) 뎌 | 丁 | 丁 | 丁 | 丁 | 丁 | 丁 |
| (17) 뎌 | ᄀᆡ | ᄀᆡ | ᄀᆡ | ᄀᆡ | | 彼 |
| (18) 뎨 | ᄭᅦ | | | | | 第 |
| (19) 도 | 刀 | 刀 | 刀 | 刀 | 刀 | 刀 |
| (20) 두 | 斗 | 斗 | 斗 | 斗 | 斗 | 斗 |
| (21) 디 | 矢 | 矢 | 矢 | 矢 | 矢 | 知 |
| (22) ᄃᆞ | の | 入 | の/入 | 入 | 入 | 入 |
| (23) ᄃᆞᆯ | 冬 | 冬 | 冬 | 冬 | 冬 | 冬 |
| (24) ᄃᆡ | ム | ム | ム | ム | ム | 矣 |
| | | | 矣 | | | 矣 |
| (25) -을 | し | し | し | し | し | 乙 |
| (26) -읋 | 尸 | 尸 | 尸 | 尸 | 尸 | 力? |
| (27) 라 | 罒 | 罒 | 罒 | 罒 | 罒 | 羅 |
| (28) 로 | ㄟ | ㄟ | ㄟ | ㄟ | ㄟ | 以 |
| (29) 리 | 令 | 令 | 令 | 令 | 令 | 令 |
| (30) 리 | | 禾 | | | | 利 |
| | 利 | | 利 | 利 | 利 | 利 |
| (31) 려 | | | | 呂 | | 呂 |
| (32) ㅁ/음 | 音 | 音 | 音 | 音 | 音 | 音 |
| | | | | | 立 | 音 |
| (33) 마 | 𠂉 | 𠂉 | 𠂉 | 𠂉 | 𠂉 | 𠂉 |
| (34) 며 | 分 | 分 | 分 | 分 | 分 | 彌 |
| (35) 모 | 毛 | | | | | 毛 |
| (36) 믈? | | 勿 | | | | 勿 |
| (37) ㅂ/읍 | | 邑 | | | 邑 | 邑 |
| (38) ㅂ/브 | 火 | 火 | 火 | 火 | | 火 |

| | | | | | | | |
|---|---|---|---|---|---|---|---|
| (39) | ㅅ | 七 | 七 | 七 | 七 | 七 | 叱 |
| (40) | 사 | 丬 | 丬 | 丬 | 丬 | 丬 | 沙 |
| (41) | 삼 | | 三 | | | | 三 |
| (42) | 셔 | | 立 | 立 | | | 立 |
| (43) | 시 | | 𠃌 | 𠃌 | | | 賜 |
| (44) | 시 | 二 | | 二 | 二 | 二 | 示 |
| (45) | 숣 | 白 | 白 | 白 | 白 | 白 | 白 |
| (46) | 아 | 𠂉 | 𠂉 | 𠂉 | 𠂉 | 𠂉 | 良 |
| (47) | 야 | 乚 | | | | | 也 |
| (48) | 여 | 丶 | 丶 | 丶/亠 | 亠 | 亠 | 亦 |
| (49) | | | 与 | | | | 與 |
| (50) | 예 | 之 | 之 | 之 | 之 | 之 | |
| (51) | 오 | 乛 | | 乛 | | | 乎 |
| (52) | 오(호) | 𠂇 | 𠂇 | 𠂇 | (𠂇) | 𠂇 | 乎 |
| (53) | 오 | | 五 | | | | 五 |
| (54) | 우(리) | | 又 | | | | |
| (55) | 우(리) | 干 | | | 干 | | |
| (56) | 의 | 𠂆 | 𠂆 | 𠂆 | 𠂆 | 𠂆 | 衣 |
| (57) | 이 | 丨 | 丨 | 丨 | 丨 | 丨 | 是 |
| (58) | 져 | 𠂎 | 𠂎 | 𠂎 | 𠂎 | 𠂎 | 齊 |
| (59) | 하 | 下 | 下 | 下 | 下 | 下 | 下 |
| (60) | 호(오) | 丿 | 丿 | 丿 | 丿 | 丿 | 乎 |
| (61) | 히 | 𠂋 | 𠂋 | 𠂋 | 𠂋 | 𠂋 | 兮 |
| (62) | ᄒᆞ | 丷 | 丷 | 丷 | 丷 | 丷 | 爲 |
| (63) | 히(ᄒᆞ이) | | 𠂉 | 𠂉 | 𠂉/令 | 𠂉 | 令 |
| (64) | 긔 | 十 | 十 | 十 | 十 | 十 | 中 |
| (65) | | | 止 | 止 | | | 止 |
| (66) | | | | | 巳 | 巳 | |
| (67) | | | 支 | 支 | 支 | 支 | |

| | | | | | | |
|---|---|---|---|---|---|---|
| (68) | | 子 | 子 | | 子 | |
| (69) | | | | 一 | 一 | |
| (70) | | | 弋 | | | |
| (71) | | 巴 | | | | |
| (72) | | | 甲 | | | 甲 |
| (73) | 乙(乂) | | | 印 | | 印 |
| (74) | 짇 | | | 造 | | 造 |
| (75) | 일 | | | | 成 | 成 |

『舊譯仁王經』 구결문에 사용된 口訣字는 54字이고 역독점이 쓰이고 있다. 석독구결 자료 중에서 이 자료에만 쓰인 구결자는 '丬'와 '毛', 'レ', '巴' 등이다. 이들도 대개는 다른 차자표기 자료나 후대의 음독구결 자료에 쓰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석독구결에 사용된 구결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구결자가 시대에 따라 일정한 음가를 가지고 일정한 음절 또는 일정한 자음을 표기하는 문자로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4]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口訣字는 우리의 차자표기 전통 속에서 창조된 것으로 우리말의 일정한 음절이나 음소를 나타내는 문자다. 그리고 석독구결에서는 문법 형태를 표기할 경우 일정한 기능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의 다양한 이형태들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하나의 구결자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대격 조사나 주제 보조사

4) 구결자는 우리의 차자표기 전통속에서 창조된 우리의 문자로서, 문자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음을 표기하는 기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석독구결 단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후대의 음독구결 자료인 佛家口訣이나 儒家口訣에서도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구결자 중에는 시대에 따라 음이 변하거나 다른 구결자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는바, 시대에 따라 구결자의 변천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구결자는 문자로서 보편적인 성격도 지니지만, 극히 부분적으로는 기입 자료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몇몇 구결자는 구결을 기입한 유파의 성격에 따라 그 자료에서만 사용되는 구결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방언이 반영된 구결 자료도 있다.

등을 각각 구결자 '-ㄴ'이나 '-ㄱ' 하나로 표기하여 다양한 이형태들을 표기상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의 구결문자 체계의 도표에 제시된 추정된 음가는 대표음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여기서는 구결자에 대한 이런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舊譯仁王經』 구결문에 사용된 口訣字 중 '𠂉'와 '毛', '𠂆', '巴' 등을 포함한 몇몇 구결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구결자 '𠮟'이 대격을 지배하는 즉 타동사적인 용법을 보이는 '如'의 훈을 표기한 '如𠮟'으로 나타나는 경우부터 먼저 살펴보자. 구결자 '𠮟'은 이두 '這這'(갓갓)에서도 그 쓰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음가 'ᄀᆞᆮ'에 대해서도 대체로 이견이 없다. 다음 예문 (1)은 『舊譯仁王經』에 네 번 보이는 '如𠮟' 중 두 용례이다.

(1) ㄱ. 花上ㅣ十 皆七 量 無七ㄱ 國土ㄴ 有七ㄹㄱㅁ 一一國土ㅣ十 ᄋᆞㅣ 佛ㅣ 及ㅅ 大衆ㅣ ᄀᆞᆺㅎㅣㄴᄋᆞ白ㄹㄱㅁ 今ㄴ 如𠮟 異ᄂᆞㄱ 無七ㄴᄀᆞ <舊仁 2:5-6>

ㄴ. 諦ㄴ 聽ᄀᆞ 諦ㄴ 聽ᄀᆞ 善ᄀᆞ 之ㄴ 思ᄂᆞᆷ 念ᄂᆞᆷᄂᆞᆫᄀᆞ 法ㄴ 如𠮟 修行ᄂᆞᆫᄀᆞᄂᆞᆫᄂᆞㅣᄂᆞᄅᆞㅎㄴᄀᆞ <舊仁 3:19>

예문 (1ㄱ)과 (1ㄴ)의 '如𠮟'은 타동사적인 용법을 보이는 것이다. 이 자료에서도 형용사인 경우는 '如ㅣᄂᆞ-'(다ᄒᆞ-)로 표기하여 타동사적인 용법을 보이는 '如𠮟'(ᄀᆞᆮ)과는 구분하고 있다. 『瑜伽師地論』과 『金光明經』에는 '如𠮟'에 대해 '如ㅅ'나 '如ㅅᄂᆞ-'로 표기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華嚴經』에는 '如𠮟'과 '如𠮟'을 '如印'으로[5] 표기한 경우도 있다.

구결자 'ᄀᆞ'는 일반적으로 접속어미 '-나'를 표기하는데 사용된 구결자이다.[6] 'ᄂᆞᆫᄀᆞ', 'ᄂᆞᆫᄃᆞᆫᄀᆞ', 'ᄂᆞᆫᄃᆞᆫᄀᆞ', 'ᄂᆞᆫᄃᆞᆫᄀᆞ' 등이 그것이다. 예문 (2)의

5) '如印'(ᄀᆞᆮ)도 타동사로 사용된 것으로 '如𠮟'과 같은 어형을 표시한 것이다.

6) 이 'ᄀᆞ' 字가 『金光明經』에서는 특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佛'이나 '世尊'

'ᄉᆞᆫᄀᆞᆫ'(호나)는 'ᄉᆞᆫᄆᆞᆫ', 'ᄉᆞᆫᄃᆞᆫᄆᆞᆫ', 'ᄉᆞᆫᄉᆞᆷᄆᆞᆫ', 'ᄉᆞᆫᄂᆞᆫᄆᆞᆫ' 등과는 달리 '-ᄆᆞᆫ'가 명사형어미 '-ᄀᆞᆫ'(-ㄴ)에 바로 통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ㄱ. 十六大國王ᄋᆡ 意ᄉᆞᆷ十 國土ᄂᆡ 護ᄒᆞ시ᄂᆞᆫ 因緣ᄂᆡ 問白 [欲]ᄉᆞᆯᄇᆞᆸᄂᆞᆫᄃᆞᆯᄒᆞ야ᄂᆡᆫ 知白ᄉᆞᆷᄃᆞᆯᄒᆞ야ᄉᆞᆫᄀᆞᆫᄆᆞᆫ <舊仁 3:17-18>

ㄴ. 自相 無ᄒᆞᆫᄃᆞᆯ 他相 無ᄒᆞᆫᄃᆞᆯᄉᆞᆫᄀᆞᆫᄋᆞᆫᄆᆞᆫ 故ᄒᆞᆫᄃᆞᆯ 五眼ᄋᆡ 成就ᄉᆞᆯᄊᆞᆯᄒᆞᆫᄀᆞᆫᄒᆞᆫᄒᆞᆫ 時十 見ᄂᆡᆫᄀᆞᆫᄆᆞᆫ 見ᄒᆞᆯᄑᆞ 所ᄉᆞᆷ 無ᄒᆞᆫᄂᆡᆫᄀᆞᆷ 行ᄉᆞᆷ十 亦ᄉᆞᆫᄀᆞᆫ 不受ᄉᆞᆯᄃᆞᆯ 不行ᄉᆞᆷ十 亦ᄉᆞᆫᄀᆞᆫ 不受ᄉᆞᆯᄃᆞᆯ 非行非不行ᄉᆞᆷ十 亦ᄉᆞᆫᄀᆞᆫ 不受ᄉᆞᆯᄃᆞᆯ 乃ᄋᆞ 至ᄋᆡ 一切法ᄉᆞᆷ十ᄀᆞᆷ 亦ᄉᆞᆫᄀᆞᆫ 不受ᄉᆞᆯᄃᆞᆯ ᄉᆞᆫᄂᆡᆫᄀᆞᆷᄉᆞᆫᄂᆡᆫᄒᆞᆫᄒᆞᆫᄒᆞᆫᄒᆞᆫᄂᆡ <舊仁 15:15-18>

『舊譯仁王經』에서는 '-ᄆᆞᆫ'가 명사형어미 '-ᄀᆞᆫ'에 직접 통합한 '-ᄀᆞᆫᄆᆞᆫ' 형만 보인다.[7] 이 경우도 'ᄉᆞᆫᄆᆞᆫ', 'ᄉᆞᆫᄃᆞᆫᄆᆞᆫ', 'ᄉᆞᆫᄉᆞᆷᄆᆞᆫ', 'ᄉᆞᆫᄂᆞᆫᄆᆞᆫ'의 '-ᄆᆞᆫ'와 같은 접속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자료에 보이는 '-ᄀᆞᆫᄆᆞᆫ'를 鄕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請佛住世歌> 2구에 보이는 '動賜隱乃'(뮈신나)의 '-賜隱乃'와 예문 (2ㄴ) '見ᄂᆡᆫᄀᆞᆫᄆᆞᆫ'의 '-ᄂᆡᆫᄀᆞᆫᄆᆞᆫ'는 같은 것이다. 'ᄉᆞᆫᄆᆞᆫ', 'ᄉᆞᆫᄃᆞᆫᄆᆞᆫ', 'ᄉᆞᆫᄉᆞᆷᄆᆞᆫ', 'ᄉᆞᆫᄂᆞᆫᄆᆞᆫ' 등에 통합된 접속어미 '-ᄆᆞᆫ'와 '-ᄀᆞᆫᄆᆞᆫ', '-賜隱乃'에 통합된 '-ᄆᆞᆫ'는 같은 것이다. 명사형어미 '-ᄀᆞᆫ'에 '-ᄆᆞᆫ'가 통합한 '-ᄀᆞᆫᄆᆞᆫ'는 南豊鉉(1996a, 1996b)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명사형어미 '-ᄑᆞ'(-ᄠᅥ)에 '-ᄆᆞᆨ'(-며)가 직접 통합한 '-ᄑᆞᄆᆞᆨ'와 같은 문법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석독구결이 반영하고 있는 문법에서는 '-ᄑᆞᄆᆞᆨ'(-ᄠᅥ며)나 '-ᄀᆞᆫᄆᆞᆫ'와 같이 명사형어미 '-ᄠᅥ'이나 '-ㄴ'에 바로 '-ᄆᆞᆨ'나 '-ᄆᆞᆫ'가 통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8]

---

을 주어로 하는 문장 '佛ᄀᆞ 言ᄆᆞᆫᄂᆡᆫᄑᆞ […]'에서만 'ᄆᆞᆫ'가 쓰인다. '言ᄆᆞᆫᄂᆡᆫᄑᆞ'은 존칭 체언 '佛'과 호응하는 화법동사이다.

7) 南豊鉉(1996c:29)에서는 '-ᄀᆞᆫᄆᆞᆫ'가 다른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ᄀᆞᆫᄆᆞᆫ'의 '-ᄀᆞᆫ'을 명사형어미로 파악하지 않고 '-ᄆᆞᆫ'의 頭音을 중복하여 표기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다음 예문 (3)은 'ᄌᆞ' 字가 한 번 사용된 예문이다. 'ᄌᆞ'가 '第'의[9] 초서체에서 借字한 구결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3) 世諦ㅣ 幻化ᄭᅴ 起ᄒᆞ로ㅣ 譬ᄒᆞ이ㅣ 虛空ᄋᆞᆫ 花 如ᄒᆞᆫᄃᆞ 影ᄋᆞ 三ᄌᆞ ᄋᆞᆫ 手ㅣ 無ᄒᆞᆯᄊᆞᄉᆞᆫ 如ᄒᆞᆫᄃᆞᆫㅣ ᄋᆞ <舊仁 15:7>

예문 (3)의 '三ᄌᆞᄋᆞᆫ 手ㅣ'는 중세어의 '세차히 소니'나 '세잿(세잣) 소니' 정도에 대응되는 것인바, '三ᄌᆞᄋᆞᆫ 手ㅣ'를 고려하면 후자에 가깝게 읽을 수 있다. 구결자 'ᄌᆞ'가 고려말·조선 초기의 음독구결에서는 'ᄂᆞᆫᄌᆞᄒᆞᆫ', 'ᄂᆞᆫᄌᆞᄒᆞ' 등으로 쓰이고 있다. 남풍현(1995)과 백두현(1997a)은 'ᄂᆞᆫᄌᆞᄒᆞ', 'ᄂᆞᆫᄂᆞᄒᆞ', 'ᄂᆞᆫᄎᆞᄒᆞᆫ' 등이 서로 통할 수 있는 동일한 토의 異表記 정도로 파악하여 'ᄌᆞ'의 음가를 '자(저)' 정도로 추정한 바 있다.

---

8) '-ᄑᆞᄀᆞ'나 '-ᄀᆞᄀᆞ'를 설명함에 있어 명사형어미 '-ᄆᆞ'이나 '-ᄂᆞ'에 직접 통합하는 '-ᄀᆞ'나 '-ᄀᆞ'를 용언 어간에 결합하는 접속어미 '-ᄀᆞ'(-며)와 '-ᄀᆞ'(-나)와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은 국어 문법사 기술에서 중요한 문제를 놓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가 단순하게 명사형어미 '-ᄆᆞ'이나 '-ᄂᆞ'에 직접 통합하는 '-ᄀᆞ'나 '-ᄀᆞ'는 조사나 첨사로, 용언 어간에 결합하는 '-ᄀᆞ'(-며)와 '-ᄀᆞ'는 어미로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국어 문법사 기술에서 이런 방식의 용어 사용 문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석독구결에는 실제로 명사구에 직접 결합하는 吐들이 용언 어간에 결합되는 어미들과 같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석독구결은 바로 이런 문법 즉, 15세기 문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우리의 고대국어 문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접속어미 '-ᄀᆞ', '-ᄀᆞ'와 '-ᄑᆞᄀᆞ', '-ᄀᆞᄀᆞ', 명사구에 직접 통합하는 '-ᄉᆞ/ㅡ'(-여)와 계사 '-이-'에 통합한 '-(이)여'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역사문법에서 동명사어미라고 하는 '-ᄀᆞ'이나 '-ᄑᆞ'이 중세어에서와는 달리 석독구결에서 생산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점도 석독구결의 문법이 고대국어의 문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이런 현상은, 고대국어에서는 명사문이 상당한 정도로 발달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9) 訓蒙字會와 新增類合에서 '第'는 'ᄎᆞ례 뎨'이다.

구결자 'ㅇ'가 석독구결에서는 조사 '-ㅇㅣ'(-마다)나 의존명사 'ㅇ'(마)를 표기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舊譯仁王經』에는 조사 '-ㅇㅣ'(-마다)만 보인다. 다음 예문 (4)가 그것이다.

(4) ㄱ. 花上ㅋ十 皆七 量 無七ㄱ 國土ㄴ 有七ㄹㄱㅁ 一一國土ㅋ十 ㅇㅣ 佛ㅅ 及ㅂ 大衆ㅅノ王ㄴンㄱ白ㄹㄱㅁ 今し 如ㄸ 異ンㄱ 無七ニケ <舊仁 2:5-6>

ㄴ. 一一國土七 中ㅋ七 一一佛ㅅ 及ㅂ 大衆ㅅノ今ㅇㅣ 各ㄱ各ㄱ ホ 般若波羅密し 說ヒハニㅣ <舊仁 2:6-7>

『金光明經』과 『瑜伽師地論』에 보이는 'ㅇカ'(마도)나 'ㅇ', 'ㅇ七'(맛) 등은 의존명사 'ㅇ'를 표기한 것이다. 의존명사 'ㅇ'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15세기 국어의 의존명사 '마'와 관련된다.

'毛' 字는 지금까지 발굴한 구결 자료 중 이 자료에만 보이는 구결자이다. 향가에는 '毛' 字가 15회나 쓰이고 있는데, '모'로 읽히는 경우가 많다. 구결자 '毛'를 '모'로 읽는다 해도 예문 (6)에 보이는 '相ろ毛ㄴろ'나 '斯毛ンㄹハ'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다 각각 유일 예이기 때문이다.

(6) ㄱ. 爾七ンㄱ 時十 諸ㄱ 大衆ㄱ 俱七ンㅋホ 共七 僉然ㅎ 生疑ンㅋ 各ホ 相ろ毛ㄴろ 謂言ンナ尸 <舊仁 2:19>

ㄴ. 今日ㅋ十 如來ㄴ 大光明し 放ンニトろㄱのㄱ 斯毛ンㄹハ 何七ンㄱ 事し 作ンセインニトㄱㄴㅋセロンヒハニケ <舊仁 2:23-24>

'毛' 字 와 '相ろ毛ㄴろ'나 '斯毛ンㄹハ'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鄕歌에 15회나 사용된 '毛' 字 중에도 예문 (6)에 보이는 '相ろ毛ㄴろ'나 '斯毛ンㄹハ'와 유사하게 쓰인 것은 없다.

'ㅁ' 字도 앞의 구결 문자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舊譯仁王經』에서만 사용된 구결자다. 예문 (6ㄴ)과 예문 (7)에 보이는 '斯毛ᄉᆞᄆᆞ'이다. '-ᄆᆞ'은 15세기의 '-ᄃᆞ록'과 의미가 통한다.

(7) 十八梵天ᄉᆞ 六欲ᄒᆞ 諸ㄱ 天ᄉᆞᄂᆞᆺᄀᆞ 亦ᄉᆞㄱ 八萬種ᄒᆞ 音樂ᄒᆞ 作ᄉᆞᄃᆞᆫ 聲ᄭᅳ 三千ᄒᆞ 動ᄉᆞᄒᆞᄂᆞᄀᆞᄉᆞ 乃 十方ᄒᆞ 恒河沙ᄒᆞ 佛土ᄋᆞᆫ 至ㅣ 有緣ᄉᆞㄱᄅᆞᄒᆞㄱ 斯毛ᄉᆞᄆᆞ 現ᄉᆞᄒᆞᄂᆞᄀᆞᄂᆞᆡ <舊仁 3:4-6>

'-ᄆᆞ'은 조선 시대 吏讀나 조선 후기의 어휘 자료집에 보이는 '-巴只'(-ᄃᆞ록)이나[10] '爲巴只'(ᄒᆞ도록, ᄒᆞ도로기)과 같은 것이다.

다음 예문 (8)은 구결자 'ㄴ'가 쓰인 용례다.

(8) ㄱ. 時ᄒᆞ 十六大國王ᄒᆞ 中ᄋᆞᆫ 舍衛國主ㅣᄂᆞᆫᄃᆞ 波斯匿王ㅣ 名ᄉᆞㄴ 曰白ᄃᆞ 月光ᄉᆞᄂᆞᆫ白ᄅᆞᄉᆞᄀᆞ <舊仁 2:24-25>

ㄴ. 十六大國王ㅣ 意ᄋᆞᆫ 國土ᄂᆞ 護ᄂᆞᆺᄒᆞ 因緣ᄂᆞ 問白 [欲]ᄉᆞᄂᆞᆫ ᄂᆞᆮᄐᆞᄅᆞᄀᆞᄋᆞᄂᆞᄂᆞᆫ 知白ᄋᆞᆫ ᄅᆞᄀᆞ ᄉᆞᄂᆞᄀᆞ乃 <舊仁 3:17-18>

예문 (8) 외에 '幻化ㅣ 幻化ᄒᆞ 衆生ᄂᆞ 見ᄐᆞᄅᆞ 名ᄋᆞ 幻諦ᄉᆞᄂᆞᆺᄒᆞㅣᄀᆞ' <舊仁 15:8>에 대한 난상 수정토 '幻化ᄋᆞᆫᄒᆞᄉᆞᄋᆞ 幻化ᄂᆞ 見ᄐᆞᄅᆞ 衆生ᄅᆞᄂᆞᄀᆞᄂᆞᄉᆞᄂᆞᆫ(衆ᄅᆞ 生ᄂᆞᄀᆞᄂᆞ ᄉᆞᄂᆞᆫ) 名ᄋᆞ 幻諦ᄉᆞᄂᆞᆺᄒᆞㅣᄀᆞ'에도 'ᄉᆞᄂᆞᆫ'가 보인다. 구결자 'ㄴ'는 이 자료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안동본 또는 박동섭본 능엄경이나 남권희본 능엄경에도 'ᄉᆞᄂᆞᆫ'가 보인다. 구결 연구 초기에는 'ᄉᆞᄂᆞᆫ'를 'ᄒᆞ여' 정도로 읽고 'ㄴ'의 原字를 '如'로 보는 견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ㄴ'를 '-아'나 '-야' 정도로 읽고 있다. 백두현(1997a)에서는 'ㄴ'가 '也'의 생획자로 '야'를 표기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박진호는 구결학회 월례강독회에서 '如'의 15세기 한자음이 '셔'라는 점과

10) 大明律直解에는 '-巴只' 외에 '-己只'로 표기된 것도 있다.

'ᄒᆞ야' 대신 'ᄒᆞ여'로 나타나는 것이 15세기나 그 이후라는 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아, 'ㄴ'의 原字를 '也'나 '良' 정도로 파악한 바 있다. 구역인왕경과 고려 시대의 음독구결 자료에 보이는 'ᄂᆞㄴ'는, 구결자 'ㄴ'의 原字를 '也'로 파악하여 'ᄒᆞ야' 정도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ᄂᆞㄴ'는 'ᄂᆞᄋᆞ'(ᄒᆞ아)와는 차이를 보이는 표기로 보는 것이 좋다. 구역인왕경에 이 토가 기입된 당시의 현실음을 반영한 토 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결자 'ᄌᆞ'는 지금까지 발견된 석독구결에서 다섯 번 쓰인 구결자이다. 그 중 3 개가 『舊譯仁王經』에 보이는데 예문 (9)가 그것이다. 이 외에 『瑜伽師地論』과 『華嚴經疏』에도 'ᄌᆞ' 字가 사용된 용례가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음독구결에서는 이 구결자가 쓰이지 않았다.

(9) ㄱ. 時十 無色界ㅌᄌᆞㄱ 量 無ㅌㄱ 變ノㄱㅂㅌ 大香花ㄴ 雨ㄹㄱ ㅁ 香ㄱ 車輪 如ㅣᄂᆞᄒᆞ 花ㄱ 須彌山王 如ㅣᄂᆞナㄱᄉᆞ <舊仁 2:14-15>

ㄴ. 六方ᄀᆞㅌᄌᆞㄲ 亦ᄂᆞㄱ 復ㄹ 是ㄴ 如ㅣᄂᆞㅂハニケ <舊仁 3:11-12>

ㄷ. 卽ㄹ [於]座ㅌ 中ᄀᆞ十 十恒沙ㅌ 天王ᄉᆞ 十恒沙ㅌ 梵王ᄉᆞ 十恒沙ㅌ 鬼身王ᄉᆞ 及 至ㄴ 三趣ㅌᄌᆞᄉᆞノ仝 有ㅌナㄱᄉᆞ <舊仁 11:15-16>

예문 (9)에서 'ᄌᆞ'가 쓰인 분포를 보면, 항상 '-ㅌ' 다음에 분포하여 [[[-ㅌ ] # ᄌᆞ] + 조사]의 구성으로 쓰인 용례만 보인다. 즉, 'ᄌᆞ'가 나타나는 환경이 모두 속격 조사 뒤와 조사 앞이므로 'ᄌᆞ'가 명사적으로 쓰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ᄌᆞ'의 原字와 그 음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예문 (9ㄴ)의 '六方ᄀᆞㅌᄌᆞㄲ'는 [[[六方+앗(아+ㅅ)] # ᄌᆞ] +도] 정도로 분석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이 문장 앞에 오는 '南方ᄀᆞㅌ 法才菩

薩', '東方ㅣㅅ 寶柱菩薩', '北方ㅣㅅ 虛空性菩薩', '西方ㅣㅅ 善住菩薩' 등에 대응하는 명사로 쓰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六方ㅣㅅ ᄒᆞ가'와 호응하는 서술어 '如ㅣᄂᆞᆫᄒᆞ시가'(다ᄒᆞᄂᆞ기시며)에서도 알 수 있듯이 '六方ㅣㅅ ᄒᆞ가'를 존칭 체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예문 (9ㄷ)의 '三趣ㅅ ᄒᆞᄉᆞ ᄂᆞᄆᆞ'(三趣人 ᄒᆞ여 호리)도 앞에 나오는 '十恒沙ㅅ 天王'과 '十恒沙ㅅ 梵王', '十恒沙ㅅ 鬼身王' 등과 관련되어 'ᄒᆞ'가 쓰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백두현(1997a)은 이런 점에 주목하여 'ᄒᆞ'의 原字를 '子' 字로 추정하고, 'ᄒᆞ'를 인성 명사를 대용하는 대명사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런데 다른 예문들에서는 'ᄒᆞ'가 명사적으로 쓰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두 사람을 대용하는 것으로 쓰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 국어에서 [[[-ㅅ ] # ᄒᆞ] + 조사]와 같은 구성에 사용된 대명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ᄒᆞ'를 대명사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는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ᄒᆞ'를 잠정적으로 의존명사적인 용법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 예문들을 통하여 다시 검토해 보자.

(10) ㄱ. 或 [於]是處ㅣㅓ 親戚交遊ㅗ 談處ㅗ 等ᄂᆞᆫ [有]ㅐㅣ 住ᄂᆞㅣㅁ 而ᄆᆞ [於]是處ㅣㅓ 遠離ㄴ 樂ᄆᆞ 不多ᄂᆞᄆᆞᄆᆞᆷ 謂ㄱ 長夜ㅣㅓ 數習ᄂᆞㅣㅁ 彼ㄴ 與ㄷ 共居ᄂᆞᆫᄃ 增上力ᄆᆞ 故ᄂᆞᄂᆞᄒᆞ 或 復樂ᄀᆞ 二ㅗ 第七子ㄴ 與ㄷ 共住ᄂᆞᄒᆞᄂᆞᄀᆞᄂᆞᄆᆞ 諸ㄹ 是 [如]ᄎᆞ 等ᄂᆞㄱㄴ 名下 行處障ㅗᄂᆞᄎᆞㅣ <瑜伽師地論 26:11-14>

ㄴ. 此ㄲ 菩薩ㄱ 四天王衆天ㅣ三十三天ㅣ夜摩天ㅣ兜率陀天ㅣ化樂天ㅣ他化自在天ㅣ梵天ㅣ梵身天ㅣ梵輔天ㅣ梵衆天ㅣ大梵天ㅣ光天ㅣ少光天ㅣ無量光天ㅣ光音天ㅣ淨天ㅣ少淨天ㅣ無量淨天ㅣ徧淨天ㅣ廣天ㅣ少廣天ㅣ無量廣天ㅣ廣果天ㅣ無煩天ㅣ無熱天ㅣ善見天ㅣ善現天ㅣ色究竟天ㅣᄂᆞᄆᆞᄅᆞㅅᄀᆞᄆᆞㄴ 聞ㅏᄀᆞ <華嚴經疏 14:6-15:1>

예문 (10ㄱ)은 『瑜伽師地論』에 한 번 보이는 '二ᄉᆞ第七ᄌᆞ'는 '二ᄉᆞ第七 ᄌᆞ' 정도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예문 (10ㄴ)의[11] '色究竟天ᄉᆞ ᄂᆞᆷᄀᆞᆯᄐᆞᄌᆞᄉᆞ'은 '[…] 色究竟天ᄉᆞ ᄂᆞᆷᄀᆞᆯᄐᆞ ᄌᆞᆷᄉᆞ' 정도로 분석할 수 있는데 'ᄌᆞ+ᆷᄉᆞ'의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석독구결의 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예문 (10ㄴ)을 보면 'ᄌᆞ'가 꼭 사람을 대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예문 (9ㄱ)의 '無色界ᄐᆞ ᄌᆞㄱ'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결자 'ᄌᆞ'의 原字를 '子'로 추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子' 字가 구결이나 이두, 향찰 등에서 쓰이지 않는 借字이기 때문이다. 구결자 'ᄌᆞ'의 原字와 음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새로운 자료들을 기대한다.

다음은 단어의 頭音 표기에 사용된 구결자 'ᄐᆞ'를 살펴보자.

(11) 四無所畏ㅣᄒᆞ 十八不共法ㅣᄒᆞ 五眼ㅣᄒᆞ 法身ㅣᄒᆞᄂᆞᆫᄀᆞ 大覺世尊ᄀᆞ 前ᄒᆞ 已ᄒᆞ <u>我ᄐᆞ 等ᄂᆞᆫᄀᆞ</u> 大衆ᄒᆞ 爲ᄒᆞᄉᆞ <舊仁 2:19-21>

'我ᄐᆞ 等ᄂᆞᆫᄀᆞ'의 '我ᄐᆞ'는 '우리'의 두음을 표기하여 訓讀하도록 표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두음 표기법에는 '爲ᄒᆞᄉᆞ', '爲ᄒᆞ', '爲ㅡ' 등과 '用ᄒᆞ'(ᄡᅳ-), '以ᄒᆞ', '我ᄋᆞ'(우리), '有ᅮ-'(두-) 등이 있다.

2.3. 『舊譯仁王經』 구결문은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 비해 생략표기가 많지 않고, 吐도 깨끗한 필체로 정확하게 기입된 자료다. 제14장에 한 곳과 제15장에서 세 부분이 난상에 수정되어 있다. 난상에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장의 해당 부분의 註에서 각각 밝힐 것이다.

---

11) 이 문장은 "이 보살은 四天王衆天과 삼십삼천과 야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천, 범신천, 범보천, 범중천, 대범천, 광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정천, 소정천, 무량정천, 편정천, 광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과천,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이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들으며"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다.

먼저 이 자료에 나타나는 존재동사 '有'와 관련된 어형부터 살펴보자. 다음 예문 (12)와 예문 (13)이 『舊譯仁王經』 구결문에 보이는 존재동사의 대표적인 용례들이다.

(12) ㄱ. 信行ㄴ 具足ᄉᆞᆫᄀᆞᆷ 復ᄉᆞᆫᄀᆞ 五道ㄷ 一切 衆生ㅣ 有ㄷᆞᄂᆞᆷ 復ᄉᆞᆫᄀᆞ 他方ㄷ 量ㅅᄂᆞᆫ 可ㄷᆞᄉᆞᆫᄀᆞ 不矣ㅣㅌㄷ 衆 有ㄷᆞᄂᆞᆷ <舊仁 2:1-2>

ㄴ. 復ᄉᆞᆫᄀᆞ 十方淨土ㄴ 變ᄉᆞᄒᆞ 百億高座ㄴ 現ᄉᆞᄒᆞ 百億須彌寶花ㄴ 化ᄉᆞᄒᆞᄂᆞᆫᄀᆞㅌ 有ㄷᆞᄂᆞᆫᄀᆞᄉᆞ <舊仁 2:2-3>

ㄷ. 此ㅣ 法ㄴ 說ᄃᆞᆫᄉᆞㄷ 時十 量 無ㄷᆞᄀᆞ 天子ᄉᆞ 及ㅅ 諸ᄀᆞ 大衆ᄉᆞᄂᆞᆫᄉᆞ 有ㄷᆞᄂᆞᆫᄀᆞᄉᆞ <舊仁 14:14-15>

ㄹ. 爾ㄷᆞᆫᄀᆞ 時十 波斯匿王ᄀᆞ 言ᄃᆞᆯ 第一義ㄷ 中ᄒᆞ十 世諦 有ㄷᆞᄂᆞᆫᄋᆞㅁᄅᆞᄉᆞᄒᆞ 不矣ㅣㅁᄀᆞㅌㅌᄒᆞ <舊仁 14:18>

ㅁ. 諸ᄒᆞ 有ㄷᆞᄂᆞᆷᄀᆞ 本有ᄉᆞᆫㅌㄷ 法ᄀᆞ 三假ㅣ 集ᄉᆞᆫᄀᆞ のᄇᆞᄉᆞᄒᆞ 假有ᄉᆞᄂᆞᆫᄀᆞㅣᄀᆞᆷ 無刀 無ᄉᆞᆫᄀᆞ矣ᄒᆞ 諦實ᄉᆞᆫᄀᆞㅌㄷ 無ㅣㅌᄀᆞㅣㅍ <舊仁 15:1>

(13) ㄱ. 各ᄒᆞ各ᄒᆞᄒᆞᄒᆞᄒᆞ 座前ㄷ 花ᄇᆞㄷ 上十 量 無ㄷᆞᄀᆞ 化佛ㅣ 有ㄴᄒᆞᄂᆞᆫᄀᆞᆷ <舊仁 2:3>

ㄴ. 量 無ㄷᆞᄀᆞ 菩薩ᄉᆞ 比丘ᄉᆞ 八部ᄉᆞᄂᆞᆷㄷ 大衆ㅣ 有ㄴᄒᆞᄂᆞᆫᄀᆞᄒᆞ 各ᄒᆞ各ᄒᆞᄒᆞ 寶蓮花ᄒᆞ十 坐ᄉᆞᆫᄀᆞᆷ <舊仁 2:4>

예문 (12ㄱ)의 '有ㄷᆞᄂᆞᆷ'(잇겨며)는 '잇-'과 선어말어미 '-ᄂᆞ-'(-겨-) 그리고 접속어미 '-ᄀᆞᆷ'가 통합한 구성체이다. 예문 (12ㄴ, ㄷ)의 '有ㄷᆞᄂᆞᆫᄀᆞᄉᆞ'(잇견여)는 '잇-'에 선어말어미 '-ᄂᆞ-'와 명사형어미 '-ᄀᆞ'과 '-ᄉᆞ'가 통합한 구성체이다. 예문 (12)에 통합되어 있는 '-ᄂᆞ-'는 존재동사 '잇-'에 통합된 선어말어미 '-ᄂᆞ-'가 분명하다. 예문 (12ㄹ)에서는 '有ㄷᆞᄋᆞㅣ'(잇다)를 예문 (12ㅁ)에서는 '有ㄷᆞㅣᄀᆞ'(이신)을 확인할 수 있다. 예문

(12)를 통해서 우리는 고려 시대에도 '잇-' 외에 '이시-'도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예문 (13ㄱ)의 '有ナハニカ'와 예문 (13ㄴ)의 '有ナハニ下'가 문제가 된다. 실제로 구역인왕경에는 존재동사 '有'가 존칭 체언과 호응한 경우에 '有ナハニ-'로 표기된 것만 보이기 때문이다.[12] 이런 점에 주목하여 李丞宰(1996, 1998)에서는 '-ナ-'를 主體敬語法 先語末語尾로 파악하고, '有ナハニ-'를 '겨시-'로 읽어 이것을 존칭의 존재동사로 파악하고 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존재동사를 '有ナハニ-'와 '有セナ-'와 '有セ-' 등의 3단계 경어법 체계로 파악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어말어미 '-ナ-'를 '-시-'보다는 낮은 등급의 主體敬語法 先語末語尾로 파악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ナ-' 중에는 존경법의 '-ニ-'와 계열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드물게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석독구결에 사용된 대부분의 선어말어미 '-ナ-'는 시상이나 서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13] 일반적으로 석독구결에는 존재동사를 '有ナハ ㅎ-', '有ナハニ-', '有ナ ㅎ-', '有ナㅣ', '有セ-', '有セナ-', '有セリ-'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14] 『華嚴經』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有ナ-' 형으로만 표기하고 '有セ-' 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예문 (14)는 어미구조체

12) 실제로 구역인왕경에는 예문 (13)의 '有ナハニ-'를 제외하면 '有ナ-'로 표기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 화엄경에는 '有セ-'이나 '有セリ-'로 표기된 것은 없고 모두 '有ナ-' 형으로만 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13) 고려 시대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체계는 15세기 국어의 선어말어미 체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 중 시상과 서법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들 중 일부는 생성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중세어에서처럼 시상과 서법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들이 기능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 '-ナ-'가 존경법 '-ニ-'와 계열관계를 이루면서 사용된 몇 용례에 대해서는 다음 예문 (16)을 통해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14) 석독구결에서는 원문의 '有'를 '有ㅐ-'로 즉, '두-'로 번역한 것도 있다. 그리고 드물지만 '有ソ-'로 번역한 것도 보인다.

'-ナハニ-'가 동사 'ㅅ-'에 통합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용례이다.

(14) 是時十 大自在梵王ㄱ [於]大會ヒ 中ㅣ十 ㅅナハニㄱㅗ <金光 13: 18>

예문 (14)는 선어말어미 '-ナ-'가 존경법의 '-ニ-'(-시-)와 통합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발견된 석독구결 자료에서 '有ヒナハニ-'와 같이 표기된 용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有ナハ ㅎ-', '有ナハニ-'와 '有ナ ㅎ-'를 각각 '겨시-'나 '겨시-'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잇겨기시-'나 '잇겨시-'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有ナハ ㅎ-', '有ナハニ-'와 '有ナ ㅎ-'가 존칭의 존재동사 '겨시-'의 생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有ナハ ㅎ-', '有ナハニ-', '有ナ ㅎ-'와 '有ナㅣ', '有ヒ-', '有ヒナ-'와 '有ヒリ-' 등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고려 시대에는 방언에 따라 존재동사 '잇-'이나 '이시-'에 대해 '겨-'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결자 'ナ'는 釋讀口訣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로 쓰인다.[15] '有ナハ ㅎ-', '有ナハニ-', '有ナ ㅎ-' 등이 존칭의 존재동사 '겨시-'와 관련된 표기라면 일종의 전훈독표기에 해당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有ナㅣ'와 '有ヒ-', '有ヒナ-' 등이 사용된 문장에서 존경법상 차이를 발

15) 석독구결에서의 'ナ'의 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吏讀 자료에도 '在' 字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吏讀에서의 '在'의 용법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吏讀의 '在'와 석독구결의 '-ナ-'에 대한 인식에는 학자들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남풍현 교수는 '在'와 'ナ'를 시상과 관련된 표기로 파악한 바 있다. 서종학(1989)에서는 '在'를 두 가지 즉 존경법을 나타내는 것과 "사건의 완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李丞宰(1996, 1998)에서는 '-ナ-'를 '-시-'보다는 낮은 등급의 主體敬語法 先語末語尾로 파악한 바 있다.

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문헌에 따라서는 '有ㄴ-'과 같은 표기가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有ㄴ-'(잇-), '有ㄴナ-'(잇겨-)와 같은 표기를 쓰지 않고 '有ナ-'로만 표기하는 자료에서는 '有ナ-'로 표기되는 것을 '겨-'와 '잇겨-' 중 어느 것으로 이해하는가도 문제가 된다. 고려말 음독구결에서부터는 벌써 口訣字 'ナ'가 쓰이지 않는다.

석독구결에 보이는 선어말어미 '-ナ-'의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ナ-'는 동사와 형용사, 계사 모두에 통합할 수 있다. 명사형어미 '-ㄴ', '-ㅁ'과 관형사형어미 '-ㄴ', '-ㄹ'과 통합한다. 선어말어미 '-ナ-'가 다른 선어말어미와 통합한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5) ㄱ. ソ白ナ尸入ㄱ, ソ白ロナ尸入ㄱ, ソ白ロナㄱ
ㄴ. ソナハニㄱ ㅗ
ㄷ. ソ氵ナㄱ入ㅁ, ソ氵ナ矛ㅁ
ㄷ′. ソ丈ナㄱ丁, ソ丈ナ廿七ㅣ
ㄹ. ソナ矛ㅣ, ソナ矛氵七ロ, ソナ矛ㅁ (* 참고 ソナ今ヽ)
ㄹ′. ノ矛ナㄱリㅣ, ノ矛ナㅣ, ノ矛リナㅣ (* 참고 ノ今ナㅣ)
ㅁ. ソロナㄱ, ソ白ロナㄱ
ㅂ. ノナ矛ㅣ, ノナ矛ヽ

예문 (15ㄱ)을 보면 '-ナ-'가 겸양법의 '-白-'과 통합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문 (15ㄴ)는 '-ナハニ-'로 선어말어미 '-ナ-'가 존경법의 '-ニ-'와 통합한 것이다. 예문 (15ㄷ, ㄷ′)은 '-ナ-'와 '-氵-', '-丈-'가 통합한 것이다.

예문 (15ㄹ)은 선어말어미 '-ナ-'가 '矛' 앞에 통합한 것이고 예문 (15ㄹ′)은 '-ナ-'가 '矛'(리) 뒤에 통합된 것이다. 예문 (15ㄹ′)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ㄹ + ㅣ-'에 '-ナ-'가 통합한 것이다. 석독구결 단계에는 선어말어미 '-리-'가 문법화의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시기이므로 대부

분의 '-ᄒᆞ-'가 명사형어미 '-ㄹ'과 계사 '-ㅣ-'가 통합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고려말 음독구결에서부터 'ᄂᆞ'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ᄂᆞ-'와 'ᄒᆞ'의 결합 순서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16] 석독구결에서 'ᄒᆞ'가 '-ᄂᆞ-'의 앞에 통합한 것과 '-ᄂᆞ-'의 뒤에 통합하는 것이 공존한다는 것을 통해서도 석독구결에서는 아직도 '-ᄒᆞ-'가 완전하게 선어말어미 '-리-'로 굳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예문 (15ㅁ)은 '-ᄂᆞ-'가 선어말어미 '-ㅗ-'(-고-)와 통합한 것이다. 예문 (15ㅂ)의 'ノナヲㅣ'(호겨리다)나 'ノナヲミ'(호겨리여)는 '-겨-'가 선어말어미 '-오-'와 통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석독구결에서는 시상이나 서법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ᄂᆞ-'가 선어말어미 '-ㅌ-'(-ᄂᆞ-)와는 통합할 수 없었다.[17] 감탄법 선어말어미 '-ㅅ-'이 결합한 어미구조체 '-ㅋㅌ-', '-ㅋㅌ-', '-ㅁㅌ-' 등과 '-ᄂᆞ-'가 통합한 용례도 보이지 않는다. '-ᄂᆞ-'에 선행하는 선어말어미로는 겸양법의 '-白-'과 확인법의 '-ㅊ-', '-ㅋ-' 그리고 선어말어미 '-ㅗ-'(-고-)와 '-오-' 등이 있다. '-ᄂᆞ-'와 '-ㄴ-'의 통합은 '有ナハ-', '有ナハニ-', '有ナ-'를 제외한다면 예문 (14)에서 가져온 (15ㄴ)의 '-ナハニ-'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ᄂᆞ-'의 특이한 통합형으로 보이는 'ノナトㅣ'가 구역인왕경에 하나가 보인다. 'ノナトㅣ'는 예문 (16ㄴ)에 나타나는 'ノナトㄱ矣

16) 석독구결에 사용된 선어말어미 '-리-'를 검토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ᄒᆞ-'로 표기된 것 중 대부분을 '-ㄹ + ㅣ-' 정도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독구결에서 'ᄒᆞ'와 '𠆢'(리)는 분포상으로 차이를 보인다. 전자에 비해 '𠆢'는 주로 '-ㅠ'과 의존명사 '이'와 계사 '-이-'나 주격조사 '-이'가 통합한 어형을 표기할 때 쓰는 구결자다.

17) 고려 시대 석독구결에 사용된 선어말어미를 보면 시상이나 서법과 관련된 것 중에는 이들과 대응되는 중세어의 그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 많다. 실제로 '-ᄂᆞ-'는 하나의 이상의 문법 기능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많다. '-ᄂᆞ-'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ᄂᆞ-'가 접속어미 '-ᄀᆞ'나 '-ㅋ'와 통합한 용례도 보인다.

ᄉᆞ'와 비교해 볼 수 있다.

(16) ㄱ. 佛ㄱ 諸ㅋ 道果ㄴ 得ナㄱ 實天衆ㅋ十 告ニ尸 善男子ㅇ 是ㄲ 月光王ㄱ 已ᄉ 於過去ヒ 十千劫ヒ 中ㅇヒ 龍光王佛法ヒ 中ㅇ十ソㅇ 四住ヒ 開士ㄲ尸 爲のしソㅣナㄱし 我ㄱ 八住ヒ 菩薩ㄲ尸 爲のしソㅣハ白ろㄱのw 今ソㄱ 於我ㅋ 前ㅇ十ソㅇ 大師子吼しソナトㅣ <舊仁 11:20-22>

ㄴ. 或ナㅣ 曠野ヒ 熱時ヒ 燄 如ᄎソㄱ矢ᄉ 或ナㅣ 天上ㅇヒ 因陀網 如ᄎソㄱ矢ᄉ 一ㄱ 塵ヒ 中ㅇヒ 示現ノㄱ 所しソ尸 如ᄎ 一切 微塵ㅇ十カ 悉ㅇ 亦カ 然ᄉソナトㄱ矢ᄉ <華嚴 15:13-14>

예문 (16ㄱ)의 'ソナトㅣ'와 예문 (16ㄴ)의 'ソナトㄱ矢ᄉ'은 각각 '-ナ-'가 '-ト-'(-누-)나 '-トㄱ矢ᄉ' 앞에 통합된 것이다. 선어말어미 '-ト-' 앞에 통합한 것이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ト-'를 중세어의 '-ᄂᆞ-'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ソナトㅣ'와 'ソナトㄱ矢ᄉ'는 각각 이 자료에 보이는 'ソニトㄱᄉ'(ᄒᆞ시눈여)와 'ソニトろㄱ入ㄱ'(ᄒᆞ시누온ᄃᆞᆫ) 등과 비교되는 것이다. '-ナ-'가 '-ト-' 앞에 직접 결합한 이런 것이 이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긴 하지만, 'ソニトㄱᄉ'와 'ソニトろㄱ入ㄱ'과 비교하여 '-ナト-'에 '-ナ-'를 '-ニ-'와 계열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확실한 좋은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석독구결에서 구결자 'ㅣ'가 문법 형태를 표기할 경우에는 종결어미 '-다'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용된 예문 (16ㄱ)에 나타나는 '開士ㄲ尸 [爲]のしソㅣナㄱし'(開士읾 ᄃᆞᆯ ᄒᆞ다견을)과 '菩薩ㄲ尸 [爲]のしソㅣハ白ろㄱのw'(菩薩읾 ᄃᆞᆯ ᄒᆞ다기술본 ᄃᆞ로)에서의 'ㅣ'는 회상법 선어말어미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6ㄱ) 佛ㅣ 諸ㅋ 道果ㅣ 得ㅿㅣ 實天衆ㅋㅅ 告ㅭㅁ 善男子ㅇ 是ㄹ 月光王ㅣ 已ㅔ 於過去ㅌ 十千劫ㅌ 中ㅇㅌ 龍光王佛法ㅌ 中ㅇㅅㅅㅇ 四住ㅌ 開士ㄹㅁ 爲ᄒᆞᄉᆞᆫㅣㅿㅣㄴ 我ㅣ 八住ㅌ 菩薩ㄹㅁ 爲ᄒᆞᄉᆞᆫㅣㅅ白ㅎㅣㅅᄆᆞᆫ 今ㅅㅣ [於]我ㅋ 前ㅇㅅㅅㅇ 大師子吼ᄒᆞᄉᆞᆫㅿㅏㅌㅣ <舊仁 11:22>

'開士ㄹㅁ [爲]ᄒᆞᄉᆞᆫㅣㅿㅣㄴ'과 '菩薩ㄹㅁ [爲]ᄒᆞᄉᆞᆫㅣㅅ白ㅎㅣㅅᄆᆞᆫ'에서의 'ㅣ'를 종결어미로 파악하면 '開士ㄹㅁ [爲]ᄒᆞᄉᆞᆫㅣ'에 동사 'ㅿㅣㄴ'과 '菩薩ㄹㅁ [爲]ᄒᆞᄉᆞᆫㅣ'에 동사 'ㅅ白ㅎㅣㅅᄆᆞᆫ'의 복합 토 구성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표기가 석독구결에서는 쓰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문 (16ㄱ)은 "부처가 모두의 道果를 얻은 實天衆에게 이르시되, 善男子아 이 月光王이 이미 過去의 十千劫 중에 있는 龍光王 佛法 가운데 (있어) 四住의 開士가 되어 있거늘 나는 八住의 菩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서 大師子吼를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으로 의미상으로도 '-ㅣ-'를 회상법 선어말어미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회상법 선어말어미 '-ㅣ-'가 지금까지 발굴된 석독구결에서는 이 두 개가 전부라는 것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향가나 고려 시대의 이두 자료에서 'ㅣ'의 原字 '如'가 회상법의 선어말어미로 사용된 용례 '爲如乎'이나 '望白如乎' 등에서 선어말어미 '-如-'를 확보할 수 있다.[18]

구결자 'ㅌ'가 석독구결에서는 선어말어미 '-ㅌ-'를 표기하거나 명사적 용법을 보이는 'ㅌ'를 표기하는 데 쓰고 있다. 음독구결에서 'ㅌ' 字가 주로 선어말어미 '-ㅌ-'(-ᄂᆞ-)를 표기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석독구결에서 사용된 선어말어미 '-ㅌ-'와 '-ㅏㅌ-'는 분포상에서는 차이

18) 고려 시대 이두에 쓰인 선어말어미 '-如-'에 대해서는 이승재(1992:167~168)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향가와 고려 시대 이두에 보이는 선어말어미 '-더-'와 관련된 논의는 鄭在永(1997b:609)을 참조할 수 있다.

를 보이지만 중세어의 선어말어미 '-ᄂᆞ-'에 직접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석독구결에 보이는 '-ㅗ-'(-노-)도 '-ᄂᆞ-'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한 것으로 중세어의 '-노-'(-ᄂᆞ+오-)와 같은 것이다. 석독구결에 사용된 선어말어미 '-ㅌ-'의 경우는 분포에서나 기능면에서는 중세어의 '-ᄂᆞ-'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 분명하다.[19] 고려 시대의 '-ㅌ-'와 중세어에서의 '-ᄂᆞ-'가 통합 관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석독구결에 보이는 '-ㅌ-'와 '-ㅏ-' 그리고 '-ㅗ-'(-ᄂᆞ+오-)를 분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같은 선어말어미로 파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고려말·조선 초기의 음독구결에 사용된 선어말어미 '-ㅌ-(-ᄂᆞ-)와 중세어의 '-ᄂᆞ-'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석독구결이 반영하고 있는 문법에서 선어말어미 '-ㅌ-'가 고려말·조선 초기의 음독구결 자료와 중세어에서의 '-ᄂᆞ-'와 분포나 통합관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것이 국어 문법사에서 변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20]

석독구결에서 [[[-ㄱ] # ㅌ]+ㄷ]과 같은 구성에 사용된 'ㅌ'는 명사적인 것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석독구결에서 'ㅌ' 字는 선어말어미 외에 의존명사처럼 사용된 것도 있다. 'ㅐㄱㅌㄷ'(인ᄃᆞ), 'ㅅㄱㅌㄷ'(혼ᄃᆞ) 등이 의존명사 'ㅌ'가 사용된 것이다. 'ㅐㄱㅌㄷ'(인ᄃᆞ)은 계사(-ㅐ-)와 '-ㄱ'(-ㄴ) 그리고 의존명사 '-ㅌ-' , 속격조사 '-ㄷ' 등이 통합한

19) 석독구결에서 선어말어미 '-ㅌ-'는 동사와 형용사 계사 모두에 통합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에서는 '-ㅌ-'가 겸양법 '-ㅁ-'과 '-ㅁ-'와 통합한 것과 '-ㅌㅅㄱ-'의 용례만 보인다. 기능면에서도 석독구결에 사용된 '-ㅌ-'는 현재 시제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드물게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서법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0) 실제로 석독구결에 사용된 선어말어미 체계와 중세어에 보이는 선어말어미의 체계 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전대의 선어말어미가 13세기 후반이나 14세기 초를 경계로 하여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지기도 하여 선어말어미의 기능 체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구성체이고, 'ㅅㄱㅌㄷ' (혼ᄌᆞ)은 'ㅅ-'(ᄒᆞ+오-)와 '-ㄱ' 그리고 의존명사 '-ㅌ'와 '-ㄷ'이 통합한 구성체이다. 이들은 각각 '-ㄱ'이 생략된 'ㅐㅌㄷ'(인ᄌᆞ)과 'ㅅㅌㄷ' (혼ᄌᆞ)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ㅅㄱㅌㄷ'이나 'ㅿㄱㅌㄷ'은 'ㅅᅀㄷ'(호릿)이나 'ㅿᅀㄷ'(ᄒᆞ릿)과 같은 동궤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21] 석독구결에 '*-ㄱㄷ'이나 '*-ㄲㄷ'로 표기된 것은 없다.[22] 남풍현(1996c:8-9)에서는 '*-ㄱㄷ'이 쓰이지 않고 '-(ㄱ)ㅌㄷ'으로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여 '-ㅌㄷ'을 동명사 '-ㄱ'의 속격형을 보충하는 표기로 파악한 바 있다.

## 3. 한글 轉寫

序品 第一

[……]

信行ㄴ 具足ㅿㄴᄀᆞ 復ㅿㄱ 五道ㄷ 一切 衆生ㅐ 有ㄷㅏᄀᆞ 復ㅿㄱ 他方ㄷ 量ㅅㅎ 可ㄷㅿㄱ 不ᄉᆞㅐㅌㄷ[23] 衆 有ㄷㅏᄀᆞ <舊仁 2:1-2>

---

21) 석독구결에서는 관형절에 '-ㄱ', '-ㄲ'을 사용하는 경우와 '-(ㄱ)ㅌㄷ', '-ᅀㄷ'과 같이 '관형사형어미 # 의존명사+속격조사'의 결합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15세기 국어에서 항상 '-ㄴ', '-ㄹ'만을 사용하는 관형절 구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석독구결 자료에서 이런 두 가지 관형절이 어떤 기능상의 차이를 갖는지에 대해 앞으로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2) 명사형어미 '-ㄱ'이나 '-ㄲ'에 조사 '-ㅋ'가 통합한 'ㅿㄱㅋ'나 'ㅅㄲㅋ'는 보인다. 'ㅅㄲㅋ'와 함께 'ㅅᅀㅋ'도 보이는바, 'ㅅᅀㅋ'(호리의)는 'ᄒᆞ+오-'와 관형사형어미 '-ㄹ'과 의존명사 '이' 그리고 속격조사 '-의'가 통합한 것이다.

23) 量ㅅㅎ 可ㄷㅿㄱ 不ᄉᆞㅐㅌㄷ: '量ㅅㅎ 可ㄷㅿㄱ'은 '量홈(혜아룜) 짓ᄒᆞᆫ' 정도로 읽을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옴(음) 짓ᄒᆞ-'는 중세어의 '-암/엄 짓ᄒᆞ-'로 이어지는 알종의 可望法 표현이다. '不ᄉᆞㅐㅌㄷ'은 명사구를 부정하는

信行올 具足ᄒᆞ시며 ᄯᅩᄒᆞᆫ 五道ㅅ 일체 즁ᄉᆡᆼ이 잇겨며 ᄯᅩᄒᆞᆫ 他方ㅅ 量 홈(헤아롬) 짓ᄒᆞᆫ 안디이ᄂᆞᆺ 물 잇겨며

復ᄂᆞᆨ 十方淨土ㄴ 變ᄂᆞᆷᄃᆞ 百億高座ㄴ 現ᄂᆞᆷᄃᆞ 百億須彌寶花ㄴ 化ᄂᆞᆷᄃᆞᄂᆞᆨᄇᆞ[24] 有ᄂᆞᆫᄀᆞᄂᆞᆫᄉᆞ[25] <舊仁 2:2-3>

ᄯᅩᄒᆞᆫ 十方 淨土ᄅᆞᆯ 변ᄒᆞ져 百億 高座ᄅᆞᆯ 現ᄒᆞ져 百億 須彌 寶花ᄅᆞᆯ 化ᄒᆞ져 혼ᄂᆞ 잇견여

各ᄀᆞ各ᄀᆞᄀᆞᄉᆞᄒᆞ[26] 座前ᄂᆞᆫ 花ᄇᆞᆫ 上ᄒᆞ 量 無ᄂᆞᆫᄀᆞ 化佛ㅣ 有ᄂᆞᆫᄒᆞᄂᆞᆫᄀᆞᆺ

---

부정표현이다. 不ᄉᆞᆺㅣᄇᆞᄂᆞᆫ의 'ㅣᄇᆞᄂᆞᆫ'은 '不ᄉᆞᆺㅣᄀᆞᄇᆞᄂᆞᆫ', 'ᄂᆞᆨᄇᆞᄂᆞᆫ' 등을 고려하면, 계사(-ㅣ-)와 의존명사 '-ᄇᆞ-' 그리고 속격조사 '-ᄂᆞ'이 통합한 구성체임을 알 수 있다. '不ᄉᆞᆺㅣᄇᆞᄂᆞᆫ'에서는 계사 '-ㅣ-'다음에 '-ᄀᆞ'이 생략된 것이다.

24) 이 문장은 동사구를 나열하는 'ᄂᆞᆷᄃᆞ'로 이어지는 문장이다. 일반적으로 釋讀口訣에서는 동사구를 나열할 때는 ᄂᆞᆷᄃᆞ를 사용하고 명사구를 나열할 때는 '-ㅣᄃᆞ'나 '-ㅅ'를 쓴다. 고려말 音讀口訣 자료에서부터는 동사구에서는 'ᄀᆞᆫ乃(커나)', 명사구 나열에는 '-ㅣᄋᆞ乃(-이어나)'나 '-(ㅣ)ㅗ(-(이)여)'를 많이 사용한다. 고려 시대 구결에서는 명사의 집단곡용에서와 같이 즉, 마지막 명사구에까지 '-와'가 붙는 것처럼 명사구에는 물론 마지막 동사구에까지 'ᄂᆞᆷᄃᆞ'나 '-ㅣᄃᆞ', '-ㅅ' 등이 붙는다. 그리고 '[…] 化ᄂᆞᆷᄃᆞᄂᆞᆨᄇᆞ의 'ᄂᆞᆨᄇᆞ(혼ᄂᆞ)'는 'ᄒᆞ+오+ㄴ'에 의존명사 'ᄇᆞ'가 통합된 것이다. 석독구결과 신라·고려시대의 吏讀 자료에는 '內'와 'ᄇᆞ'가 명사처럼 쓰인 용례가 있다.

25) 有ᄂᆞᆫᄀᆞᄂᆞᆫᄉᆞ는 동사어간 '有ᄂᆞᆫ-'에 선어말어미 '-ᄂᆞ-', 명사형어미 '-ᄀᆞ', 감탄형(감탄조사) '-ᄉᆞ'가 통합한 구성체이다.

26) '各'은 15세기에 '제여곰'으로 언해된다. '제여곰'에는 기원적으로 보조사 '-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보조사 '-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씩"의 의미를 갖는 '-곰'은 모음 뒤에서는 '-옴'으로 교체를 보인다. 반면에 "-서", "-(ㅁ)으로써"의 의미를 갖는 '-곰'은 그런 교체를 보이지 않는다. 전자는 체언에, 후자는 용언의 활용형(대개 연결어미 '-어')에 붙는다는 분포상의 차이도 갖는다. '제여곰'의 '-곰'은 모음 뒤에서도 /ㄱ/을 유지하므로 후자의 '-곰'이다. 그렇다면 '제여곰'의 '제여'는 용언의 활용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제여'는 용언 어간 '제-'와 연결어미 '-어'로 분석될

<舊仁 2:3>

저의저의아곰(제제아곰) 座前ㅅ(자리 알핏) 고ᄌᆞ롯 우긔 量(그지) 업슨 化佛이 잇겨기시며(잇격시며)

量 無ㅌㄱ 菩薩ㅣ 比丘ㅣ 八部ㅣノ仝ㅌ 大衆ㅢ 有ナハニ下 各ㄱ各ㄱホ 寶蓮花ㅋ十[27] 坐ンニケ <舊仁 2:4>

量(그지) 업슨 菩薩여 比丘여 八部여 호릿 大衆이 잇겨기시하(잇격시하) 저의저의곰(제제곰) 寶蓮花아긔 좌ᄒᆞ시며

花上ㅋ十 皆ㅌ 量 無ㅌㄱ 國土ㅢ 有ㅌろㄱム ——國土ㅋ十ア丨 佛ㅣ 及ハ 大衆ㅣノヲリンㅂろㄱム[28] 今し 如ᄐ 異ンㄱ 無ㅌニケ <舊仁 2:5-6>

곳 우아긔 닷 그지 업슨 국토이 이손 ᄃᆡ ——國土아긔마다 佛여 ᄆᆡᆨ 大衆여 호리이 ᄒᆞ솔본 ᄃᆡ 今을 ᄀᆞᆮ 異ᄒᆞᆫ 업스시며

——國土ㅌ 中ㅋ十 ——佛ㅣ 及ハ 大衆ㅣノ仝ア丨 各ㄱ各ㄱホ 般若波羅密し 說ㅂハニ丨<舊仁 2:6-7>

——國土ㅅ 中앗 —— 佛여 ᄆᆡᆨ 大衆여 호리마다 저의저의아곰 般若波羅密을 니ᄅᆞᄂᆞ기시다

---

수 있다. 용언 어간말의 /y/ 뒤에 모음 어미가 결합될 때 /y/ 삽입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석독구결의 '各ㄱ-'는 '저의-'를 나타낸 것으로서 '제-'의 先代形이라고 추측된다.

27) 구결자 '十'는 처격 표시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대표음은 '긔'이다. 앞에 오는 모음에 따라 '긔'나 '긔'로 표기하려고 한다. 즉 'ㅋ十'는 '-아긔'로, 'ㅣ十'는 '-여긔'로 표기하는 태도를 취한다. '十' 字가 후대에는 '히'로 읽힌다.

28) 大衆ㅣノヲリ ンㅂろㄱム: '大衆ㅣノヲリ'의 'ノヲリ'는 'ᄒᆞ十오十ㅁ'에 의존명사 '이'와 주격조사가 통합한 구성체를 표기한 것이다. 'ンㅂろㄱム'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현대국어로 해석할 때는 이 부분을 해석하지 않아도 문맥상 지장은 없다.

他方ㄴ 大衆ᄉ 及ㅅ 以ㅎ 化衆ᄉ [此]ㅣ 三界ㄴ 中ᄋㅣ 衆ᄉㅅ尸 十二大衆ㄱ 皆ㄴ 來ㅅᄋㅎ 集會ㅅᄋ 九劫蓮花座ᄋ十 坐ㅅ白ㄹㄱㅁ <舊仁 2:7-8>

他方ㅅ 大衆여 믹 뻐곰 化衆여 이 三界ㅅ 中앗 衆여 홀 十二 大衆은 닷 來ᄒ아곰 集會ᄒ야 九劫 蓮花座아기 坐ᄒ술본 ᄃ

其會ㄴ 方廣ㄱ 九百五十里ㅣㄱㄴ[29] 大衆ㅣ 僉然ᄒ 而ᄆ 坐ㅅㅂㅅㄴ ㅣ <舊仁 2:8-9>

其會ㅅ 方廣ᄋᆫ 九百五十里이ᄂᆞᆯ 大衆이 僉然히 而로 坐ᄒᄂᆞ기시다

爾ㄴㅅㄱ 時十 十號ㅣᄒ 三明ㅣᄒ 大滅諦ㅣᄒ 金剛智ㅣᄒㅅㄴㄱ 釋迦牟尼佛ㄱ 年ㄴ 初ㄴㄹㅅㄱ[30] 月ㄴ 八日ᄋ十 方ㄴ 十地ᄋ十 坐ㅅㄴ

---

29) 九百五十里ㅣㄱㄴ: 여기에 통합되어 있는 '-ㅣㄱㄴ'은 구결자의 구성으로 보면 계사 '-ㅣ-'와 명사형어미 '-ㄱ' 그리고 대격조사 '-ㄴ'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 '九百五十里ㅣㄱㄴ'를 대격이 통합되어 있는 목적어로 해석할 수 없다. 이 문장에서는 '-ㄱㄴ'을 접속어미로 해석하면 자연스럽다. 석독구결이 사용되던 시기까지는 접속어미가 후기중세국어나 근대국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려 중기까지 사용된 국어의 접속어미는 '-ㅁ(-고)'와 '-ᄋ(-아)' 그리고 '-ᄀ(-며)' 정도이다. 의존명사 'ᄃᆞ'의 구성체가 文法化하기 시작하는 시기도 이 시기부터이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ㄱㄴ'은 고려말 구결자료와 이두자료 그리고 후기중세국어의 보이는 '-ㅿㄱㄴ', '-ㅿㄴ', '-ㅿㅌ(-거늘)' 등과 통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승재(1992)에서 지적된 바 있는 尙書都官貼에 보이는 '爲如乙'과 吏讀 자료에 보이는 '-如賜乙'을 등을 고려하면 고려시대 이두 자료에 '-더늘'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늘/거ᄂᆞᆯ'도 통사적 구성체 즉 '-거-'와 명사형어미 '-ㄴ' 그리고 대격조사 '-ㄹ'이 통합한 구성체가 문법화하여 접속어미로 굳어진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鄕歌에 사용된 '-乙'의 용법 중에서도 대격으로 해석할 수 없는 '-乙'도 석독구결에 보이는 '-ㄱㄴ' 중 문맥상 접속어미로 해석해야 할 '-ㄱ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30) 初ㄴㄹㅅㄱ: '初ㄴㄹㅅㄱ'은 '初ㄴㄹ ㅅㄱ(비로소 ᄒᆞᆫ)' 정도로 읽을 수 있다.

ᄒᆞ[31] <舊仁 2:10-11>

엿ᄒᆞᆫ(엳ᄒᆞᆫ) ᄲᅴ 十號이져 三明이져 大滅諦이져 金剛智이져 ᄒᆞ신 釋迦牟尼佛ᄋᆞᆫ 흰ᄅᆞᆯ 비르소 ᄒᆞᆫ, ᄃᆞᆯ 八日아기 비릇(ᄆᆞᆺ) 十地아기 坐ᄒᆞ시하

大寂室三昧ᄀᆞᆫ 入ᄉᆞᄂᆞᆫᄀᆞ[32] 緣ᄒᆞ 思ᄉᆞᄀᆞᆷ 大光明ᄒᆞ 放ᄉᆞᄀᆞ 三界ᄅᆞ 中ᄒᆞ 照ᄉᆞᄇᆞᄂᆞᆫᄀᆞ <舊仁 2:11-12>

大寂室三昧아기 入ᄒᆞ시ᄒᆞᆫ 緣ᄋᆞᆯ 思ᄒᆞ아곰 大光明을 放ᄒᆞ아 三界ㅅ 中을 照ᄒᆞᄂᆞ기시며

復ᄉᆞᄀᆞ [於]頂上ᄀᆞᆫ 千寶蓮花ᄒᆞ 出ᄉᆞ白ᄀᆞᆯᄀᆞᄆᆞ 其花ᄀᆞ 上ᄉᆞᄀᆞ 非想非非想天ᄀᆞᆫ 至ᄒᆞ 光ᄀᆞ 亦ᄉᆞᄀᆞ 復ᄀᆞ 爾ᄅᆞᄒᆞᄉᆞᄂᆞᆫᄀᆞ 乃 他方恒河沙ᄅᆞ 諸ᄂᆞᆫᄀᆞ 佛ᄅᆞ 國土ᄀᆞᆫ 至ᄅᆡ ᄉᆞᄇᆞᄂᆞᆫᄀᆡ <舊仁 2:12-14>

ᄯᅩᄒᆞᆫ 頂上아기 ᄒᆞ야 千寶蓮花ᄅᆞᆯ 出ᄒᆞ술본 ᄃᆡ 그 고ᄌᆞᆫ 우ᄒᆞᆫ 非想非非

---

이것은 석독구결에서 '樂ᄀᆞᄉᆞᆫ-'나 '與ᄒᆞᄉᆞᆫ', '俱ᄒᆞᄉᆞᆫ-' 등과 같이 '부사 ᄒᆞ-'와 '부사형 ᄒᆞ-' 등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구성이다. 이 중 '부사형 ᄒᆞ-'의 구성은 '-오 ᄒᆞ-'와 '-이 ᄒᆞ-', '-어 ᄒᆞ-' 구성이 다 보인다. '-어 ᄒᆞ-'는 석독구결에서는 'ᄉᆞᄀᆞᄂᆞᆫᄀᆞ'과 같이 나타난다. 이들은 15세기 국어에 그대로 이어지는바, 이 중 '-오 ᄒᆞ-'와 '-이 ᄒᆞ-' 구성은 이미 15세기에서는 드물게 보인다.

31) 坐ᄉᆞᄂᆞᆫᄒᆞ: 일반적으로 석독구결에서 존경법의 선어말어미 '-ᄂᆞ(시)-' 다음에는 항상 어말어미 '-ᄒᆞ'가 통합된다. '*ᄉᆞᄂᆞᆫᄀᆞ'는 보이지 않는다. 'ᄉᆞ白ᄀᆞ'와 'ᄉᆞᄂᆞᆫᄀᆞ' 등이 쓰인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口訣字 'ᄒᆞ'는 일반적으로 존칭의 호격조사로 쓰이기도 하고, '名ᄒᆞ'로 많이 나타난다. 瑜伽師地論에서는 이 외에 '先ᄒᆞ'도 나타나며, 존경법의 '-ᄂᆞ(시)-'와 통합하지 않은 'ᄉᆞᄅᆡᄒᆞ' 형도 보이는바, 이것은 사동접사 뒤에 'ᄒᆞ'가 통합된 용례이다.

32) 入ᄉᆞᄂᆞᆫᄀᆞ: 이 구성은 석독구결에서도 특이한 구성이다. 舊譯仁王經上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吐이다. 존경법의 'ᄂᆞ' 뒤에 바로 동사 'ᄉᆞ-'가 결합한 특이한 구성인데 현재의 문법사적인 지식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해토이다. 이것은 다른 釋讀口訣 資料에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현재로서는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舊譯仁王經에는 이 외에 '得ᄂᆞᄉᆞᄀᆞ'<3:13>이 하나 더 보인다.

想天아기 니를져 빗도 ᄯᅩ호 復ᄒᆞ(도로) 그럿져 ᄒᆞ시며 乃ᄋᆞ(乃ᄒᆞ사) 他方恒河沙ㅅ 모ᄃᆞ신 佛ㅅ 國土아기 니르리 ᄒᆞᄂᆞ기시다

時十 無色界ㄴ中ㄱ 量 無ㄴㄱ 變ㅅ ㄱㅂㄴ 大香花ㄴ 雨ㄹㄱㅁ 香ㄱ 車輪 如ㅣㅅᄒᆞ 花ㄱ 須彌山王 如ㅣㅅㄴㄱᄉᆞ <舊仁 2:14-15>

ᄲᅴ 無色界ㅅ 中ᄋᆞᆫ 그지 업슨 變ᄒᆞᆫᄂᆞᆺ 大香花ᄅᆞᆯ 비ᄒᆞᆫ ᄃᆡ 香ᄋᆞᆫ 車輪 다ᄒᆞ져 고ᄌᆞᆫ 須彌山王 다ᄒᆞ견여

雲 如ㅣㅅᄒᆞ 而ᄲᅮ 下ㅅㅁㅂㄴ가 十八梵天王ㄱ 百變異色花ㄴ 雨ㅂᄒᆞ 六欲ㄴ 諸ㄱ 天ㄱ 量 無ㄴㄱ 色花ㄴ 雨ㅂᄒᆞㅅㄴ가 <舊仁 2:15-17>

雲 다ᄒᆞ야 而ᄲᅮ 下ᄒᆞ고ᄂᆞᆯ며 十八梵天王ᄋᆞᆫ 百變異色花ᄅᆞᆯ 雨ㅂᄒᆞ(쁘리져)[33] 六欲ㅅ 모ᄃᆞᆫ 하ᄂᆞᆯ도 그지 업슨 色花ᄅᆞᆯ 쁘리져 ᄒᆞ겨며

其佛ㄴ 座前ᄒᆞ中 自然ᄒᆞ 而ᄲᅮ 九百萬億劫花ㅂ 生ㅅㄱㅁ <舊仁 2:17>

그 부텻 座前아기 自然히 而ᄲᅮ 九百萬億劫花ㅣ 生ᄒᆞᆫ ᄃᆡ

上ㅅㄱ 非想非非想天ᄒᆞ中 至ㅅㄴ가[34] 是ㄴㅅㄱ 時十 世界ㄴ 其地ㄱ 六種ᄲᅮ 震動ㅅㅁㅂㅣ <舊仁 2:17-18>

우ᄒᆞᆫ 非想非非想天아기 니를겨며 엿ᄒᆞᆫ ᄲᅴ 世界ㅅ 그 ᄯᅡᄒᆞᆫ 六種ᄋᆞ

---

33) 雨ㅂᄒᆞ: 여기서의 '雨ㅂᄒᆞ(ㅅᄒᆞ)'는 타동사로 사용된 것이다. 이 경우 15세기 국어에서는 '빟-'이나 '쁘리-' 정도로 언해할 수 있는바, 중세어 자료에서 '雨'가 동사로 언해될 때에는 '빟-'으로 언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雨ㅂᄒᆞ'가 올바른 표기라면 '쁘리져' 정도로 석독할 수 있지만, 중세어에서 '雨'의 언해를 고려한다면 '雨ㅂᄒᆞ'를 '雨ㅅᄒᆞ'로 파악하고 '비ᄒᆞ져' 정도로 석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34) 至ㅅㄴ가: '至ㅅㄴ가'는 동사 '니르-'에 선어말어미 '-ㅅㄴ-'와 연결어미 '-가'가 통합한 것이다. 석독구결에서는 연결어미 '-가'와 '-ᄒᆞ' 앞에 선어말어미 '-ㅅㄴ-'가 통합될 수 있었다.

로 震動ᄒᆞ고ᄂᆞ다

爾ᄉᆞᆫᄀᆡ 時十 諸ᄀᆡ 大衆ᄀᆡ 俱ᄉᆞᆫᄃᆞᆯᄭᅩ 共ᄉᆡ 僉然ᄒᆞᆷ 生疑ᄉᆞᆷᄃᆞᆯ 各ᄭᅩ 相ᄒᆞᄆᆞᄉᆞᆨᄒᆞ 謂言ᄉᆞᄂᆞᄇᆞ <舊仁 2:19>

엿ᄌᆞᆫ 四긔 모ᄃᆞᆫ 大衆은 다ᄆᆞᆺᄒᆞ아곰 다ᄆᆞᆺ 僉然히 生疑ᄒᆞ아 제아곰 相ᄒᆞᄆᆞᄉᆞᆨᄒᆞ 謂言ᄒᆞ겋

四無所畏ㅣᄒᆞᆷ 十八不共法ㅣᄒᆞᆷ 五眼ㅣᄒᆞᆷ 法身ㅣᄒᆞᆷᄉᆞᆫᄃᆡ 大覺世尊ᄀᆡ 前ᄒᆞ 已ᄒᆞ 我ᄒᆞᆫ 等ᄉᆞᆫᄀᆡ 大衆ᄒᆞ 爲ᄒᆞᄒᆞᆷ <舊仁 2:19-21>

四無所畏이져 十八不共法이져 五眼이져 法身이져 ᄒᆞ신 大覺世尊온 알ᄑᆡ(前의) 이믜사(이믜셔) 우리 다ᄒᆞᆫ 大衆의 삼

二十九年ᄃᆞ ᄒᆞᆫᄉᆞᆫᄃᆡ下 摩訶般若波羅蜜ᄒᆞ 金剛般若波羅蜜ᄒᆞ 天王問般若波羅蜜ᄒᆞ 光讚般若波羅蜜ᄒᆞᄂᆞᆫ 說ᄃᆞ ᄒᆞᄉᆞᆫᄃᆞᄅᆡ[35] <舊仁 2:21-23>

二十九年아기 ᄒᆞ시하 摩訶般若波羅蜜여 金剛般若波羅蜜여 天王問般若波羅蜜여 光讚般若波羅蜜여 ᄒᆞᆯ 닐아기시오다

---

35) '說ᄃᆞ ᄒᆞᄉᆞᆫᄃᆞᄅᆡ'에는 선어말어미 '-ᄃᆞ(오)-'가 '-시-'와 통합되어 문장종결어미 '-ㅣ(-다)'와 통합한 구성체이다. 이와 같이 선어말어미 '-ᄃᆞ-'가 평서법의 문장종결어미 '-ㅣ'와 통합한 것으로 15세기 국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중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 '-오-'와 '-다'가 통합할 경우 '-오-' 뒤에서 '-다'는 '-라'로 실현되지만,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변동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선어말어미 '-ᄃᆞ(오)-'가 평섭법의 문장종결어미 '-ㅣ'와 통합한 용례도 드물게 몇 예만 보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국어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주로 명사형어미나 관형사형어미로 사용된 '-ᄀᆡ'이나 '-ᄇᆞ'과 통합하는 것이 많이 보인다. 이 경우 '-오-'의 결합은 수의적이다. 그리고 가망법의 '-(ᄃᆞ)ᄒᆞ 可ᄉᆞᆫᄃᆞ' 구문이나 당위성 표현인 '-(ᄃᆞ)ᄒᆞᄉᆡᄀᆡ' 구성에도 '-오-' 통합된 것이 많이 보인다. 석독구결이나 향가에 사용된 선어말어미 '-오-'에 대해서는 鄭在永(1997b)을 참조할 수 있다.

今日ㅣ十 如來ㅣ 大光明ㅣ 放ㅅ니ᄒᆞ시ᄂᆞᆫ 斯毛ㅅ巴ㅅ 何ᄒᆞᆫ 事ㅣ 作ㅅᄒᆡㅅ니ᄒᆞᄉᆞᆫ가 <舊仁 2:23-24>

今日아기 如來이 大光明을 放ᄒᆞ시누온 ᄃᆞᆫ 斯毛ㅅ巴ㅅ(이모ᄒᆞᄃᆞ록) 엇ᄒᆞᆫ 일을 作ᄒᆞᆺ뎌 ᄒᆞ시눈이앗고 ᄒᆞ나기시며

時十 十六大國王ᄒᆞ 中ㅣ ᄒᆞᆫ[36] 舍衛國主ㅣㄴ尸 波斯匿王ㅣ 名ㅅᄂᆞᆫ 曰白尸 月光ㅣㅅ白ᄀᆞᆺᄀᆞ <舊仁 2:24-25>

ᄲᅴ 十六大國王ㅅ 中앗 舍衛國主이싫 波斯匿王이 名ᄒᆞ야(ᄒᆞ아?) 니ᄅᆞ술ᄫᆞᆯᆞᆷ 月光여 ᄒᆞ술보린

德行ㄱ 十地ㅣ 六度ㅣ 三十七品ㅣ 四不壞淨ㅣㅅㄴᆞᆫ[37]ㅅᄀᆞ 摩訶衍ᄒᆞ 化ᄒᆞ 行ㅅᄀᆞㅅ니ᄒᆞㄱᆞㅣ[38] <舊仁 2:25-3:1>

德行ᄋᆞᆫ 十地여 六度여 三十七品여 四不壞淨여 ᄒᆞᆷᄋᆞᆯ ᄒᆞ져 摩訶衍ㅅ 化ᄅᆞᆯ 行ᄒᆞ져 ᄒᆞ시눈여

次第ᄆᆞ 居士ㅣㄴ尸 寶ㅣ 蓋ㅣ 法ㅣ 淨名ㅣㅅ尸 等ㅅ니ᄀᆞ[39] 八百人ㅋ 十 問ㄴ가 <舊仁 3:1-2>

次第로 居士이싫 寶여 蓋여 法여 淨名여 ᄒᆞᆷ 다ᄒᆞ신 八百人의긔 무르시며

---

36) 석독구결에서 처격조사는 일반적으로 '十', 'ㅣ十', 'ㅡ十' 등으로 나타나나 속격 'ᄒᆞ' 앞에서만 'ㅣ'로 나타난다.

37) 여기서 'ㅅᄂᆞᆫ'은 'ㅣ'에 의해서 명사구들을 접속한 뒤에 이들을 아우르는 표현인데, 대격조사 'ᄂᆞ' 앞에 '尸'이나 'ᄉᆞ'가 생략되어 있다.

38) 'ㅅᄂᆞㄱᆞㅣ'는 'ᄀᆞ'에 의해 동사구들을 접속한 뒤에 이들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동명사 어미 'ㄱ' 뒤에 감탄 조사 'ㅣ'가 결합되어 일종의 감탄문을 형성하고 있다. 석독구결에는 '-尸ㅣ/尸ㅡ'도 보인다.

39) 'ㅣ'에 의해 명사구를 나열한 뒤에 이들을 아우르는 표현으로서 漢文 原文에 '等'字가 있을 경우 '[NPㅣ … NPㅣ] ㅅ尸 等(ㅣ)ㅅ-'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ㅣㅅ-'가 '如'자의 訓으로 쓰일 때와는 문맥 의미에 차이가 있다.

復ᄂᆞᆨ 須菩提ㅣ 舍利佛ㅣᄂᆞᆫᄃᆞ 等ᄂᆞᆫᄃᆞᆨ 五千人ᄋᆞᆫᆞᆫ 問ᄂᆞᆫᄃᆞᆫᄀᆞ <舊仁 3:2>

또ᄒᆞᆫ 須菩提여 舍利佛여 ᄒᆞᆯᄊᆞ 다ᄒᆞ신 五千人의긔 무르시며

復ᄂᆞᆨ 彌勒ㅣ 師子吼ㅣᄂᆞᆫᄃᆞ 等ᄂᆞᆫᄃᆞᆨ 十千人ᄋᆞᆫᆞᆫ 問ᄂᆞᆫᄃᆞᆫᄀᆞᆫᄂᆞᆫᄃᆞᆨᄂᆞ[40] 能ᄉᆞᆺ 答ᄂᆞᆫᄃᆞᆫᄉᆞᆫᄀᆞᆫ 者 無ᄀᆞᆫᄇᆞᄒᆞᆫᄂᆞᆫᄃᆞᆫᄋᆡ <舊仁 3:2-3>

또ᄒᆞᆫ 彌勒여 師子吼여 ᄒᆞᆯᄊᆞ 다ᄒᆞ신 十千人의긔 問ᄒᆞ시며 ᄒᆞ시늘, 能ᄉᆞᆺ 答ᄒᆞ시릿 者 없ᄂᆞ기시다

爾ᄀᆞᆫᄉᆞᆫᄀᆞᆨ 時ᄋᆞᆫᆞᆫ 波斯匿王ᄀᆞᆨ 卽ᄀᆞᆼ 神力ᄂᆞᆫᄀᆞᆨ 以ᄋᆞᄋᆞᆷ 八萬種ᄀᆞᆫ 音樂ᄂᆞᆫᄀᆞᆨ 作ᄂᆞᆫᄃᆞᆫᄀᆞᆷ <舊仁 3:4>

엿ᄒᆞᆫ 쁴 波斯匿王ᄋᆞᆫ 卽ᄀᆞ(곧+오?) 神力을 ᄡᅳ아 八萬種ㅅ 音樂ᄋᆞᆯ 作ᄒᆞ시며

十八梵天ㅣ 六欲ᄀᆞᆫ 諸ᄀᆞᆨ 天ㅣᄂᆞᆫᄉᆞᆷᄀᆞᆷ 亦ᄂᆞᆨ 八萬種ᄀᆞᆫ 音樂ᄂᆞᆫᄀᆞᆨ 作ᄂᆞᆫᄃᆞᆫᄒᆞ 聲ᄫᆞᆷ 三千ᄂᆞᆫᄀᆞᆨ 動ᄂᆞᆫᄇᆞᄒᆞᆫᄃᆞᆫᄀᆞᆫᄃᆞᆨ ㅣ 乃 十方ᄀᆞᆫ 恒河沙ᄀᆞᆫ 佛土ᄋᆞᆫᄃᆞᆫ 至ᄅᆡ 有緣ᄂᆞᆫᄀᆞᆨ ᄒᆞᆫᄃᆞᆫᄀᆞᆨ[41] 斯毛ᄂᆞᆫᄇᆞᆫᄒᆞᆫ 現ᄂᆞᆫᄇᆞᄒᆞᆫᄃᆞᆫᄀᆞᆫᄃᆞᆨ ㅣ <舊仁 3:4-6>

---

40) 여기서 'ᄂᆞᆫᄃᆞᆫᄀᆞᆫᄂᆞᆨ'은 <03:01>에서부터 3 개의 동사구를 'ᄀᆞᆷ'에 의해 접속한 뒤에 이들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동명사 어미 'ᄀᆞᆨ'과 대격조사 'ᄂᆞᆫ'이 결합되었지만 여기서는 명사절로 내포된 것이 아니라 후행절과 접속 관계로 이어진 것이다. 15세기의 '-거늘'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동명사 어미 'ᄀᆞᆨ'만으로도 접속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15세기의 '-니'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41) 15세기에 의존명사 '이'에 속격 '-ᄋᆡ/의'(여격 '-ᄋᆡ/의긔' 포함)가 결합되면 의존명사 '이'가 탈락되는 현상이 있었다. '阿難이', '개야미' 등에 보이는 접미사 '-이'도 속격조사와 호격조사 앞에서 탈락되는 현상이 있다. '有緣ᄂᆞᆫᄃᆞᆫᄀᆞᆫᄂᆞᆨ'도 '[[有緣ᄒᆞ-ㄴ] 이]-의긔-ㄴ'의 구조에서 의존명사 '이'가 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는 동명사 어미 'ᄀᆞᆨ' 자체로서 "-ㄴ 것", "-ㄴ 사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十八梵天여 六欲ㅅ 모든 天여 호리도 ᄯᅩ훈 八萬種ㅅ 音樂ᄋᆞᆯ 作ᄒᆞ시하 聲으로(소리로) 三千을 動ᄒᆞ나기신여 사 十方ㅅ 恒河沙ㅅ 佛土아기 니르리 有緣ᄒᆞᆫ의긘 斯毛ㅅ巴ㅅ(이모ᄒᆞ도록) 現ᄒᆞᄂᆞ기시다

彼 他方 佛國ㄴ 中ㅣㄴ 南方ㅣㄴ 法才菩薩ㄱ 五百萬億大衆ㅣ 俱ㅅㄱㄴ 共ㄴ 來ㅅㅣㅈ 此ㅣ 大會ㅣㅅ 入ㅅㄴㄱ <舊仁 3:6-8>

뎌 他方 佛國ㅅ 中앗 南方앗 法才菩薩ᄋᆞᆫ 五百萬億 大衆이 다ᄆᆞᆺᄒᆞᆫᄋᆞᆯ 다ᄆᆞᆺ 來ᄒᆞ아곰 이 大會아기 入ᄒᆞ시며

東方ㅣㄴ 寶柱菩薩ㄱ 九百萬億大衆ㅣ 俱ㄴㅅㄱㄴ 共ㄴ 來ㅅㅣㅈ 此ㅣ 大會ㅣㅅ 入ㅅㄴㄱ <舊仁 3:8-9>

東方앗 寶柱菩薩ᄋᆞᆫ 九百萬億 大衆이 다ᄆᆞᆺᄒᆞᆫᄋᆞᆯ 다ᄆᆞᆺ 來ᄒᆞ야곰 이 大會아기 入ᄒᆞ시며

北方ㅣㄴ 虛空性菩薩ㄱ 百千萬億大衆ㅣ 俱ㅅㄱㄴ 共ㄴ 來ㅅㅣㅈ 此ㅣ 大會ㅣㅅ 入ㅅㄴㄱ <舊仁 3:9-10>

北方앗 虛空性菩薩ᄋᆞᆫ 百千萬億 大衆이 다ᄆᆞᆺᄒᆞᆫᄋᆞᆯ 다ᄆᆞᆺ 來ᄒᆞ아곰 이 大會아기 入ᄒᆞ시며

西方ㅣㄴ 善住菩薩ㄱ 十恒河沙ㄴ 大衆ㅣ 俱ㄴㅅㄱㄴ 共ㄴ 來ㅅㅣㅈ 此ㅣ 大會ㅣㅅ 入ㅅㄴㄱ <舊仁 3:10-11>

西方앗 善住菩薩ᄋᆞᆫ 十恒河沙ㅅ 大衆이 다ᄆᆞᆺᄒᆞᆫᄋᆞᆯ 다ᄆᆞᆺ 來ᄒᆞ아곰 이 大會아기 入ᄒᆞ시며

六方ㅣㄴ 子刀 亦ㅅㄱ 復ㄱ 是ㅣ 如ㅣㅅㅂㅅㄴㄱ <舊仁 3:11-12>

六方앗 子도 ᄯᅩ훈 ᄯᅩ 이 다ᄒᆞᄂᆞ기시며

作樂ノ尸カ[42] 亦ン丁 然センニ下 亦ン丁 復ろ 共セ 量 無セ丁[43] 音樂し 作ン3 如來し 覺寤ンリ白ロハニ丁[44] <舊仁 3:12>

作樂홇도 또ᄒᆞᆫ 그럿ᄒᆞ시하 또ᄒᆞᆫ 또 다ᄆᆞᆺ 그지 업슨 音樂ᄋᆞᆯ 作ᄒᆞ아 如來ᄅᆞᆯ 覺寤히숣고기신

佛丁 卽ろ 時リ土ろ丁のし 知ニ分 衆生ラ 根し 得ニンT[45] <舊仁 3:13>

佛은 고도 ᄢᅢ이거온 ᄃᆞᆯ 아ᄅᆞ시며 衆生의 根을 어드시ᄒᆞᆫ

卽ろ 定し 從セ 起ンニ下 方(セ)[46] 蓮花師子座上3十 坐ン白ろ丁ム[47] 金剛山王 如ㅣンロハニ丁 <舊仁 3:13-14>

고도 定을 좃 起ᄒᆞ시하 비릇(ᄆᆞᆺ) 蓮花師子座上아기 坐ᄒᆞ숣온 ᄃᆡ 金剛山王 다ᄒᆞ고기신

---

42) 문헌에 따라 'ノ令カ'로 나타나기도 한다.

43) '量'을 訓讀했는지 音讀했는지 확실치 않다. 15세기에 '無量無邊'은 '그지 업스며 又 없-'으로 언해되었다.

44) 동사 어간 '覺寤ン-'에 사동 접미사 '-リ-'가 결합된 것이다. 석독구결 자료에서 사동 구문은 일반적으로 'X ン令(リ)-'(X히-), 'X ンリ-'(X히-), 'X ㅅ-'(X히-), 'X ㅅリ-'(X히-), 'X令-'(X히-)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사동 접미사 '-リ-' 앞에는 'ン' 대신 'ㅅ'자가 쓰이는 것이 많다. 구역인왕경에는 'ㅅ'(히)가 쓰이지 않았다.

45) 여기서 동명사어미 '-丁'은 접속의 기능으로 쓰였다. '-ニンT'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결토이다.

46) '方'자 뒤에 쓰인 구결자가 특이하다. 'セ'과 字體가 달라서 'セ'으로 볼 것인가도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方セ' <2:11>에 사용된 것에 근거하여 이것도 '方セ'(비릇이나 ᄆᆞᆺ)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15세기에 '方'은 대개 '뵈야ᄒᆞ로'나 '보야ᄒᆞ로'로 언해되었다.

47) 석독구결 자료에서 선어말어미 '白'은 15세기처럼 객체 높임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으나 마치 주체 높임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주체 높임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인는 예들은 '--白ろ丁/白ㅁ丁/白ノ丁(-)', '-白ろ尸/白ㅁ尸/白ノ尸(-)'과 같이 보문 구성인 것들이 많다.

大衆ㄱ 歡喜ᄉᆞᄫᆞ 各ᄀᆞ各ᄀᆞᄀᆞᆷ 量 無ᄏᆞㄱ 神通ᄒᆞ 現ᄒᆞᄫᆞᄒᆞᄂᆞᆫᄃᆞ ᄉᆞ<舊仁 3:14-15>
大衆은 歡喜ᄒᆞ아 저의저의곰 그지 업슨 神通ᄋᆞᆯ 나토ᄂᆞ기신여

地ᄉᆞ 及ᄒᆞ 虛空ᄉᆞᄂᆞᄀᆞ十[48] 大衆ㅣ 而ᄆᆞ 住ᄉᆞᄫᆞᄒᆞᄂᆞᆫᄃᆞ <舊仁 3:15>
地여 ᄆᆡᆨ 虛空여 홇의긔 大衆이 而ᄆᆞ 住ᄒᆞᄂᆞ기시다

仁王護國般若波羅密經 觀空品 第二

爾ᄏᆞᄉᆞㄱ 時十 佛ㄱ 大衆ᄀᆞ十 告ᄉᆞᄂᆞᆫᄑᆞ <舊仁 3:17>
엿ᄒᆞᆫ ᄢᅴ긔 佛은 大衆의긔 告ᄒᆞ싫

十六大國王ㅣ 意ᄉᆞ十 國土ᄂᆞ 護ᄂᆞᄉᆞᄀᆞ 因緣ᄂᆞ 問白 [欲]ᄉᆞᄂᆞ[49]ᄉᆞᄂᆞᆫᄃᆞ ろㄱのᄂᆞᄉᆞᄂᆞ 知白ᄉᆞᄅᆞㄱ ᄉᆞᄂᆞㄱ乃 <舊仁 3:17-18>
十六大國王이 ᄠᅳ아기 國土ᄅᆞᆯ 護호릿 因緣을 묻ᄉᆞᆸ과 ᄒᆞ시누온 ᄃᆞᆯ ᄒᆞ야(ᄒᆞ아) 아ᅀᆞᆸ아고온여 ᄒᆞᆫ나

吾ㄱ 今ᄉᆞㄱ 先ᄉᆞ[50] 諸ㄱ 菩薩 爲ᄉᆞᄒᆞ[51] 佛果ᄂᆞ 護ᄂᆞᄀᆞᄀᆞ 因緣ᄉᆞ 十地ㄱ 行ᄂᆞ 護ᄂᆞᄀᆞᄀᆞ 因緣ᄉᆞᄂᆞᄂᆞ 說白ろᄒᆞㄱㅣ[52] <舊仁 3:18-19>

---

48) 'ᄂᆞᄀᆞ十'는 명사형어미 'ᄑᆞ'이 생략된 표기이다. 'ᄂᆞᄑᆞᄀᆞ十', 'ᄂᆞᄀᆞ十'로도 표기될 수 있다.
49) '欲'字는 15세기 언해문에서는 '-고져'로 언해되나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ㅅ'로 표현된다. 華嚴經 권14에 '願字가 '-ㅁㅎ'로 표현된 예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후대의 '-고져'와 연결되는 것이다.
50) '先ㅏ'로 표기된 것도 보인다.
51) '爲ᄉᆞᄒᆞ'은 '爲ᄉᆞᄒᆞᄀᆞ', '爲ᄉᆞᄀᆞ', '爲三'으로도 표기되며 "위하여"의 의미를 갖는데, 속격의 명사구를 지배한다는 것이 특이하다.
52) 이 곳의 어미구조체 '-ろᄒᆞㄱㅣ'는 三綱行實圖의 '뵈욤ㅅ다'처럼 1인칭 주어의 의지를 나타낸다.

나ᄂᆞᆫ 今ᄒᆞᆫ 몬져 모ᄃᆞᆫ 菩薩 삼 佛果ᄅᆞᆯ 護호릿 因緣여 十地ㅅ 行ᄋᆞᆯ 護호릿 因緣여 ᄒᆞᆯ(홇ᄋᆞᆯ) 니르ᄉᆞᆯᄫᆞᆸ다

諦ㅣ 聽ᄀᆞᆼ 諦ㅣ 聽ᄀᆞᆼ 善ᄀᆞᆼ[53] 之ᄂᆡ 思ᄉᆞᆷᄒᆞᆷ 念ᄉᆞᆷᄒᆞᆷᄉᆞᆼᄀᆞ 法ᄂᆡ 如ᄐᆞᆫ 修 行ᄉᆞᆼᄀᆞᆼᄂᆞᆫᄃᆞ[54]ᄉᆞᄅᆞᄒᆞᄂᆞᆨ <舊仁 3:19>

ᄌᆞ세히(ᄌᆞ세) 드르며 ᄌᆞ세히(ᄌᆞ세) 드르며 이드며 이를 思하져 念ᄒᆞ져 ᄒᆞ며 法을 ᄀᆞᆫ 修行ᄒᆞ며 ᄒᆞ겨아 ᄒᆞ고기신

時十 波斯匿王ᄀᆞ 言ᄒᆞᆫᄑᆞ 善ᄒᆞᄅᆞᄀᆞᄒᆡ 大事ᄂᆡ 因緣ᄆᆞ 故ᄂᆞᆼᄒᆞᆫᄅᆞᄐᆞᄀᆞ ᄇᆡᄀᆞ ᄃᆞᆼᄂᆞᆫ <舊仁 3:20>

ᄲᅴ 波斯匿王ᄋᆞᆫ 니르싫 이드시ᄋᆞᆫ뎌 大事ㅅ 因緣으로 [故ᄂᆞ] ᄒᆞ시고 ᄂᆞᆫ인뎌 ᄒᆞ아

卽ᄅᆞ 百億種色ᄂᆡ 花ᄂᆡ 散ᄉᆞᄅᆞᄒᆞᄂᆞᆨ[55] 變ᄉᆞᆫᄃᆞᄉᆞ 百億寶帳ㅣ 成ᄂᆞᆫ 諸ᄀᆞ 大衆ᄂᆡ 蓋ᄉᆞᄅᆞᄇᆞㅣ <舊仁 3:20-21>

고도 百億種色ㅅ 花ᄅᆞᆯ 散ᄒᆞ고기신 變ᄒᆞ아곰 百億 寶帳이 일겨아 모ᄃᆞᆫ 大衆을 蓋ᄒᆞ고ᄂᆞ다

爾ᄂᆡᄉᆞᆼᄀᆞ 時十 大王ᄀᆞ 復ᄉᆞᆼᄀᆞ 起ᄉᆞᆫ 作禮ᄉᆞᆼ白ᄅᆞ 佛十 白ᄂᆞᆫ 言ᄒᆞᆫᄑᆞ <舊仁 3:22>

엿ᄒᆞᆫ ᄲᅴ 大王ᄋᆞᆫ ᄯᅩᄒᆞᆫ 起ᄒᆞ아 作禮ᄒᆞᄉᆞᆷ고 부텻긔 ᄉᆞᆯ바 니르싫

---

53) 이 곳의 '-ᄀᆞᆼ'는 'ᄒᆞᄆᆞᆯ며'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사화 접미사로 기능하고 있는 듯하다.

54) 어미구조체 '-ᄂᆞᆫᄃᆞ'는 대개 연결형으로 쓰이나 이 곳의 한 예만은 종결형으로 쓰인 듯하다.

55) 동명사 어미 '-ᄀᆞ'이 연결어미적 기능으로 쓰인 것이다. 15세기의 '-니'에 해당한다. 인용문 바로 앞의 인용 동사에 결합되는 '-ᄑᆞ'도 연결어미적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世尊ᄒᆞ 一切 菩薩ㄱ [云]何ᄒᆞᄂᆞᆫᄃᆞ 佛果ᄃᆞ 護ᄂᆞᆫᄃᆞ [云]何ᄒᆞᄂᆞᆫᄃᆞ 十地ᄒᆞ 行ᄃᆞ 護ᄂᆞᆫᄃᆞᄒᆞ 因緣ㅣ[56]ᄂᆞᄆᆞᄅᆞᄃᆞᄅᆞ <舊仁 3:22-23>

世尊하 一切 菩薩ᄋᆞᆫ 엇ᄒᆞᆫᄋᆞᆯ 佛果ᄅᆞᆯ 護ᄒᆞ며 엇ᄒᆞᆫᄋᆞᆯ 十地ㅅ 行ᄋᆞᆯ 護호릿 因緣이다 ᄒᆞ고오리오

佛ㄱ 言ㄴᄑᆞ 菩薩ㅣ 四生ᄃᆞ 化ᄂᆞᄑᆞᆷ 色ᄉᆞ 如ᄉᆞᄂᆞᆫᄃᆞᄒᆞᄂᆞᆫᄃᆞᄒᆞ 受想行識ᄉᆞ 如ᄉᆞᄂᆞᆫᄃᆞᄒᆞᄂᆞᆫᄃᆞᄒᆞ 衆生我人常樂我淨ᄉᆞ 如ᄉᆞᄂᆞᆫᄃᆞᄒᆞᄂᆞᆫᄃᆞᄒᆞ 知見壽者ᄉᆞ 如ᄉᆞᄂᆞᆫᄃᆞᄒᆞᄂᆞᆫᄃᆞᄒᆞ 菩薩ᄉᆞ 如ᄉᆞᄂᆞᆫᄃᆞᄒᆞᄂᆞᆫᄃᆞᄒᆞ 六度四攝一切行如 二諦如 觀ᄂᆞ 不ᄉᆞᄂᆞᆫᄃᆞᄒᆞㅣ[57] <舊仁 3:23-25>

佛은 니르싫 菩薩이 四生ᄋᆞᆯ 化홇 ᄃᆡ 色여 如여 호리과 受想行識여 如여 호리과 衆生我人常樂我淨여 如여 호리과 知見壽者여 如여 호리과 菩薩여 如여 호리과 六度四攝一切行如 二諦如 觀홇 안ᄃᆞᆯ 호리이겨다

等ㅅ 慧ㅅ 灌頂ㅅᄒᆞ 三品士ㄱ 前ᄉᆞ[58] 餘ᄂᆞㄱ 習ㅣㄱ 無明緣ᄉᆞ 無明習相ㅣㄱ 故ᄒᆞᄂᆞㄱᄒᆞᄒᆞ 煩惱ᄉᆞᄂᆞᆫᄃᆞ 除ᄂᆞᄂᆞᄐᆞᄅᆞㄱᄂᆞㄱ 二諦理ᄃᆞ 窮ᄀᆞ 一切ᄌᆞᄒᆞ 盡ᄀᆞᄂᆞㄱᄂᆞᄆᆞᄆᆞㅣᄅᆞㅣ[59] <舊仁 11:1-2>

---

56) 계사 뒤에서도 종결어미 '-다'가 '-라'로 교체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계사의 연결형은 '-ㅣᄆᆞ'로 나타나고 있다.

57) 당위성을 나타내는 구문으로서 선어말어미 '-오-', 동명사 어미 '-ᄆᆞ', 의존명사 '이', 계사 '-이-', 선어말어미 '-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觀홇 안ᄃᆞᆯ호리이겨다'는 15세기의 '보디 마로리어다'와 형태론적 구성이 거의 같다. 의존명사 '이' 대신 'ᄃᆞ'를 사용한 '보디 마롫디어다'도 같은 기능을 한다.

58) '前ᄉᆞ'에 대해 명사 '앒'과 처격조사 '-ᄋᆡ'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석독구결 자료에서 처격조사는 '-ㅌᆞ' 앞을 제외하면 'ㅓ' 없이 나타나는 일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前ᄉᆞ'를 부사 '아러'로 보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즉 'ᄉᆞ'를 조사가 아니라 말음첨기로 보는 것이다.

59) '盡'은 동사 '다ᄋᆞ-', 'ᄀᆞ'는 확인법 선어말어미 '-거-'의 이형태 '-아-'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는 다음 행의 '盡ᄀᆞㅁ'를 고려할 때, 'ᄀᆞ'를 선어말어미로

等과 慧과 灌頂괏 三品士ᄂᆞᆫ 아ᄅᆡ 餘ᄒᆞᆫ 習인 無明緣여 無明習相인 故ᄂᆞᆫ(ᄃᆞᆺ) 혼ᄂᆞᆺ 煩惱여 ᄒᆞᆯ(흗ᄋᆞᆯ) 除ᄒᆞ시누온 ᄃᆞᆫ 二諦理ᄅᆞᆯ 다아 一切옛 다 아신 ᄃᆞ로이오다

圓智ㄱ 無相ㅣᄉᆞᄂᆞᆫ下 三界ㄴᆞᆫ 王ㅣᄆᆞᆷ 三十生ㅣ 盡ᄒᆞᄋᆞㅁ 等ᄒᆞ60) 大覺ᄉᆞᄂᆞᆫ가 <舊仁 11:3>

圓智ᄂᆞᆫ 無相ᄋᆞᆯ ᄒᆞ시하 三界ㅅ 王이라 三十生ᄋᆞᆯ 다아고 다(다ᄒᆞ아) 大覺ᄒᆞ시며

大寂無爲ㅣㄱ 金剛藏ㅣᄉᆞᄂᆞᆫ가 一切報ㅣ 盡ᄒᆞᄋᆞㅁ 無極ᄉᆞㄱㅌᆞㄴᆞᆫ61) 悲ㅣᄉᆞᄂᆞᆫ가 <舊仁 11:4>

大寂無爲인 金剛藏ᄋᆞᆯ ᄒᆞ시며 一切 報ᄅᆞᆯ 다아고 無極ᄒᆞᆫᄂᆞᆺ 悲ᄅᆞᆯ ᄒᆞ시며

第一義諦ᄒᆞ十 常ㅣ 安隱ᄉᆞᄂᆞᆫ下 窮原ᄉᆞᄒᆞ 盡性ᄉᆞᄒᆞᄉᆞᄂᆞㄱ 妙智ᄒᆞㅣ(ㅣᄒᆞ)62) 存ᄉᆞᄂᆞᆫ가 <舊仁 11:5>

第一義諦아기 ᄃᆞᆫ더디 安隱ᄒᆞ시하 窮原ᄒᆞ져 盡性ᄒᆞ져 ᄒᆞ신 妙智이사

---

보지 않고 어간 말음으로 볼 수도 있다. '배아-'(亡), '할아-'(毁,謗), '뵈아-'(催) 등에 보이는 파생 접미사 '-아-'(<'-가-')로 보는 것이다. 15세기에는 '-ㄴ ᄃᆞ로' 뒤에 계사가 붙을 수 없었는데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ㄱㅅㅁㅣ-', '-ㄱㅅㅁ가', '-ㄱㅅㅁᄉᆞ' 등의 표현이 나타난다.

60) '等ᄒᆞ'는 여기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等'자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보통 용언 '다ᄒᆞ-'로 석독되는데, 여기서는 '等ㅣᄂᆞᄒᆞ' 또는 '等ᄂᆞᄒᆞ'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다ᄒᆞ아'로 읽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곧'처럼 '다' 자체가 부사어로 쓰일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61)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관계절에서 '-ㄱ', '-ㄹ'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ㄱ)ㅌᆞㄴ'이나 '-ᄉᆞㄴ'과 같이 관형사형어미, 의존명사, 속격조사의 결합체를 사용하는 일이 많다.

62) 원문에는 분명히 'ᄒᆞㅣ'로 되어 있으나 'ㅣᄒᆞ'의 誤記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存ᄒᆞ시며

三賢ᄋᆞ 十聖ᄋᆞ ᄒᆞᄂᆞᆫᄀᆞ 果報ᄒᆞ야 住ᄒᆞᄂᆞᆫᄃᆞᆯ[63] 唯ᄒᆞ 佛ᄲᅴᄂᆞᆫᄃᆞ 一人ᄲᅴᄂᆞᆫᄃᆞᆯ[64] 淨土ᄒᆞ야 居ᄒᆞᄂᆞᆫᄀᆞᄲᅳᆷ <舊仁 11:6>

三賢여 十聖여 호린 果報아기 住ᄒᆞ신을 오직 佛이싫 一人이시사 淨土아기 居ᄒᆞ신이라

一切衆生ᄀᆞ 暫ᄋᆞ火ᄐᆡ 報ᄒᆞ야 住ᄒᆞ오ᄆᆞᆫᄀᆞᆯ 金剛原ᄒᆞ야 登ᄒᆞ샤ᄒᆞᄂᆞᆫᄀᆞᄲᅴ ᄋᆞ 淨土ᄒᆞ야 居ᄒᆞᄂᆞᆫᄃᆞᄒᆞᅀᅡ[65] <舊仁 11:7>

一切 衆生ᄋᆞᆫ (暫)사ᄇᆞᆺ 報아기 住ᄒᆞ곤ᄋᆞᆯ 金剛原아기 登ᄒᆞ거기신이사 淨土아기 居ᄒᆞ시옳다

如來ᄐᆡ 三業ᄀᆞ 德ᄲᅴ 無極ᄒᆞᄋᆞᆫᄆᆞᆫᄀᆞ 我ᄲᅴᄃᆞ 今ᄒᆞ 月光ᄀᆞ 三寶ᄅᆞ 禮ᄒᆞᄋᆞᆫᄇᆞᆸᄋᆞᆫᄃᆞᆯᄀᆞ ᄋᆞ <舊仁 11:8>

如來ㅅ 三業은 德이 無極ᄒᆞ고기신 我일 今ᄒᆞ 月光ᄋᆞᆫ 三寶ᄅᆞᆯ 禮ᄒᆞᄉᆞᆸ고누온여

---

63) '-ᄀᆞᄅᆞ'은 기원적으로 동명사 어미와 대격조사의 결합이지만 이런 문맥에서는 동사의 목적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결어미처럼 기능하고 있다. 후대의 '-거늘' 등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64) '-ᄲᅴᄂᆞᆫᄃᆞᆯ'는 계사,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강세 첨사의 결합이다. 강세첨사가 어말어미 뒤에 온 것이 아니라 선어말어미 뒤에 온 것이 특이하다. 이런 예는 15세기의 '-이ᅀᅡ'를 계사 어간에 '-ᅀᅡ'가 직접 통합된 것으로 분석하는 데에 결정적 증거가 된다. 15세기의 강세 첨사 '-ᅀᅡ'는 이 밖에도 동사 어간에 직접 통합된 예('드사', '죽사'), 어미구조체 '-거시-' 뒤에 통합된 예('업거시ᅀᅡ', '퓌거시아' 등)가 더 있다.

65) 어미구조체 '-(ᄅᆞ)ᄒᆞᄉᆡ'는 당위 내지 의무,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때도 있지만 여기에서처럼 가능성 내지 능력을 나타낼 때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진호(1997)을 참조할 수 있다.

法王ㄱ 上 無ㄴᄒᆞ 人中ᄒᆞᄂᆞᆫ 樹ㅣ니ᄒᆞ 大衆ᄂᆞᆯ 覆蓋ᄉᆞᆷ白ᄒᆞᄆᆞᆷ[66] 量 無ㄴᆞㄱ 光ᄭᆞᄉᆞ니ᄀᆞ <舊仁 11:9>

法王은 웋 업서 人中앗 樹이시하 大衆을 覆蓋ᄒᆞ숣옳 ᄃᆡ 그지 업슨 비츠로 ᄒᆞ시며

口ᄒᆞ十 常ㅣ 說法ᄉᆞ白ᄒᆞᄆᆞᆷ 無義ᄉᆞㄱ ᄋᆞᄂᆞᆫᄉᆞᄑᆞ 非ᄉᆞᄉᆞ니ᄀᆞ 心智 寂滅ᄉᆞ니ᄒᆞ 緣 無ㄴᆞㅣ 照ᄉᆞ니ᄅᆞᄂᆞᆫᄀᆞ <舊仁 11:10>

입아기 덛더디 說法ᄒᆞ숣옳ᄃᆡ 無義ᄒᆞᆫ 돌 홇 안돌 ᄒᆞ시며 心智 寂滅ᄒᆞ시하 緣 업시 照ᄒᆞ시골며

人中ᄒᆞᄂᆞᆫ 師子ㄱ 衆ᄒᆞ 爲ᄒᆞᅀᆞ 說ᄅᆞᄒᆞ니ㄱ 大衆ㄱ 歡喜ᄉᆞᄒᆞ 金花ᄂᆞᆯ 散ᄉᆞ白ᄅᆞᄒᆞᄂᆞᆫᄀᆞ <舊仁 11:11>

人中앗 師子ᄂᆞᆫ 衆의 삼 니르고기신 大衆은 歡喜ᄒᆞ아 金花ᄅᆞᆯ 散ᄒᆞ숣 고ᄂᆞᆯ며

百億萬土ㄱ 六大動ᄉᆞᄅᆞᄒᆞᄂᆞᆫᄀᆞ 生ᄂᆞᆯ 含ᄉᆞㄱᄒᆞᄂᆞᆫ[之] 生ㄱ 妙報ᄂᆞᆯ 受ᄅᆞᄒᆞㄱᄒᆞ <舊仁 11:12>

百億萬土ᄂᆞᆫ 六大動ᄒᆞ고ᄂᆞᆯ며 生올 含ᄒᆞᆫᄂᆞᆺ 生은 妙報ᄅᆞᆯ 받고ᄂᆞᆫ여

天尊ㄱ 快ᄒᆞ 十四王ᄒᆞᄒᆞᄂᆞᆫ[67] 說ᄅᆞᄒᆞ니ㄱ 是ㅣ 故ᄭᆞ 我ㄱ 今ᄉᆞㄱ 略ᄒᆞ 佛ᄂᆞᆯ 歎ᄉᆞ白ᄅᆞᄐᆞᄅᆞᄀᆞᅵᄉᆞᄒᆞᄂᆞᆫᄒᆞ니[68] <舊仁 11:13>

---

66) 이 때의 '白'은 '覆蓋ᄒᆞ-'의 주체인 '法王'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이런 주체 높임의 '白'은 여기에서처럼 '-ᄅᆞᄆᆞᆷ'와 같은 보문 구조에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67) '-ᄒᆞᄒᆞᄂᆞᆫ'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구결토이다. 속격조사 '-ᄒᆞ' 뒤, 대격조사 '-ᄂᆞᆯ' 앞에 왔으므로 이 곳의 'ᄒᆞ'는 명사라고 생각되나 그 이상으로 기능에 대해 추측하기가 어렵다.

68) '歎ᄉᆞ白ᄅᆞᄐᆞᄅᆞᄀᆞᅵ'에서 月光王의 偈頌이 끝나고 'ᄉᆞᄅᆞᄒᆞᄂᆞᆫᄒᆞ니'는 게송 전체를

天尊은 快히 十四王의알 니르고기신 이 故로(ᄃᆞ로) 나는 今ᄒᆞᆫ 略히 佛을 歎ᄒᆞᄉᆞᆸ고누오다 ᄒᆞᄂᆞ기시다

時十 諸ㄱ 大衆ㄱ 月光王ㅣ 十四王ㅋ 量 無ㄷㄱ 功德藏ㅣ 歎ㅅㄴㅏㄹㄱㅇㅣ 聞白ㅁㅅㄱ[69] 大法利ㅣ 得ㅂㅏㄴㅋ <舊仁 11:14-15>

ᄲᅴ 모ᄃᆞᆫ 大衆은 月光王이 十四王의 그지 업슨 功德藏을 歎ᄒᆞ시누온 ᄃᆞᆯ 듣ᄉᆞᆯ고 ᄒᆞᆫ 大法利를 얻ᄂᆞ기시며

卽ㄹ [於]座ㄷ 中ㅇㅓ 十恒沙ㄷ 天王ㅣ 十恒沙ㄷ 梵王ㅣ 十恒沙ㄷ 鬼身王ㅣ 及 至ㅣ 三趣ㄷㅈㅣㅅㅇ 有ㄷㅏㄱ ㅣ 無生法忍ㅣ 得ㅏㅋ <舊仁 11:15-16>

고도 座ㅅ 中아기 十恒沙ㅅ 天王여 十恒沙ㅅ 梵王여 十恒沙ㅅ 鬼身王여 니르리사 三趣ㅅ ᄌᆞ여 호리 잇견여 無生法忍올 얻겨며

八部阿須輪王ㄱ 現ㅇㅓ 十 鬼身ㅣ 轉ㅅㄴㅁ 天上ㅇㅓㅅㅇㅓ[70] 道ㅣ 受ㅏㅋ <舊仁 11:17>

八部 阿須輪王은 現아기 鬼身을 轉ᄒᆞ고 天上아기 ᄒᆞ아 道를 받겨며

三生ㅣㅅㄴㅁ 正位ㅇㅓ 入ㅅㄱㅂㅏㅁㅣ[71][者] 或ㅅㄱ 四生ㅣ 五生ㅣ

---

피인용절로 하는 상위문의 인용동사이다. '歎ㅅ白ㅁㅏㄹㅣ'에서 '-ㄹ-'는 주체가 화자 자신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이다. 석독구결에서 '-ㄹ-'가 이런 기능을 하는 예는 드물다. 그리고 15세기와는 달리 '-ㄹ-' 뒤에서도 '-다'가 '-라'로 교체되지 않았음이 주목된다.

69) 이 때의 '-白-'은 내포문의 주어인 '月光王'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15세기에도 이런 용법이 존재한다. 석독구결 자료에서 '-白-'이 주체 높임의 기능을 하는 듯이 보이는 예들은 이런 구문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다.

70) 'ㅇㅓㅅㅇㅓ'에서 'ㅅㅇㅓ'는 존재동사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5세기의 '-애셔'(<'-애 이셔')가 'ㅇㅓㅅㅇㅓ'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乃 至ㅣ 十生ᄉᆞᄅᆞᄉᆞᄋᆞᄅᆞ 得ᄒᆞᆫ 正位ᄋᆞᆫ 入ᄉᆞᄀᆞᄇᆞᄀᆞᆸᄀᆡᄒᆞᄉᆞᄂᆞᆫᄀᆞ <舊仁 11:17-18>

三生올 ᄒᆞ고 正位아기 入ᄒᆞᆫᄂᆞ도이져 或ᄒᆞᆫ 四生여 五生여 니르리사 十生여 흘(홇올) ᄒᆞ고 시러곰 正位아기 入ᄒᆞᆫᄂᆞ도이져 ᄒᆞ겨며

聖人性ᄂᆡ 證ᄉᆞᄀᆞᄇᆞᄀᆞᆸᄀᆡᄂᆞᆫᄀᆞ 一切無量報ᄂᆡ 得ᄇᆞᄀᆞᆸᄀᆡᄂᆞᆫᄂᆞᆡ[72] <舊仁 11:18-19>

聖人性을 證ᄒᆞᆫᄂᆞ도이며 一切 無量報ᄅᆞᆯ 얻(은)ᄂᆞ도이겨다

佛ᄀᆞ 諸ᄒᆞᄀᆞ[73] 道果ᄂᆡ 得ᄂᆞᆫᄀᆞ 實天衆ᄒᆞᄋᆞᆫ 告ᄂᆞᆯᄆᆞ <舊仁 11:20>

佛은 諸ᄒᆞ(모ᄃᆞᆫ의) 道果ᄅᆞᆯ 얻견 實天衆의긔 니르싫

善男子ᄋᆞ 是ㅣ 月光王ᄀᆞ 已ᄉᆞ [於]過去ᄒᆡ 十千劫ᄒᆡ 中ᄋᆞᄒᆡ 龍光王佛法ᄒᆡ 中ᄋᆞᄒᆞᄋᆞᆫᄋᆞ 四住ᄒᆡ 開士ㅣᆯᄆᆞ [爲]ᄋᆞᄂᆞᄉᆞᄋᆞᄂᆞᆡᄂᆞᆫᄀᆞᄂᆡ <舊仁 11:20-22>

善男子아 이 月光王은 이믜사 過去ㅅ 十千劫ㅅ 中앗 龍光王佛法ㅅ 中아기 ᄒᆞ야 四住ㅅ 開士읳 ᄃᆞᆯ ᄒᆞ다견을

我ᄀᆞ 八住ᄒᆡ 菩薩ㅣᆯᄆᆞ [爲]ᄋᆞᄂᆞᄉᆞᄋᆞᄂᆞᆡ ㅅ白ᄅᆞᆯᄀᆞ ᄋᆞᆷ 今ᄉᆞᄀᆞ [於]我ᄒᆞ 前ᄋᆞᄒᆞᄋᆞᆫᄋᆞ 大師子吼ᄂᆞᄉᆞᄂᆞᆮᄂᆞᆡ <舊仁 11:22>

---

71) 여기서 'ㅂ'는 어떤 존재(인격적 존재를 포함해서)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다. [동일]의 보조사 '-ㄱ' 뒤에 계사가 온 것이 특이하다. 이 문맥에서 계사는 존재 동사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듯하다.

72) 앞에 나온 비슷한 구성들을 고려할 때 의존명사 'ㅂ' 앞에 동명사 어미 '-ㄱ'이 표기상 생략된 것으로 이해된다.

73) '諸'자는 대개 '-ㄱ'을 받쳐 적어서 '모ᄃᆞᆫ'으로 읽히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읽혀야 할지 불확실하다. 문맥상 의미는 '모ᄃᆞᆫ'과 별로 다르지 않은 듯하다.

나ᄂᆞᆫ 八住人 菩薩잃 ᄃᆞᆯ ᄒᆞ다기ᄉᆞᆯ본 ᄃᆞ로 今ᄒᆞᆫ 나ᄋᆡ 앒아기 ᄒᆞ아 大師子吼를 ᄒᆞ겨누다

是 如ㅣㄴᆞᆫᄀᆞ 是 如ㅣㄴᆞᆫᄃᆞ 汝ᄅᆞ 解ㄴᆞᄉᆞᆨㄱ 所ᄃᆞ 如ㅣㄴᆞᆫᄂᆞㅣ <舊仁 11:22-23>
이 다ᄒᆞ며 이 다ᄒᆞ아 너의 解ᄒᆞᄂᆞᆫ 바 다ᄒᆞ겨다

眞義ㄴᆡ 得ᄃᆞ 說ㅏㄱㅣㅁ 思議ㄴᆞᄐᆞ 可ᄒᆞㄴᆞᆫㄱ 不ᄉᆞᆺᄀᆞ 度量ㄴᆞᄐᆞ 可ᄒᆞㄴᆞㄱ 不ᄉᆞᆺㅣㅁㄱ <舊仁 11:23-24>
眞義를 얻어 니르ᄂᆞᆫ이라 思議홈 짓ᄒᆞᆫ 안디며 度量홈 짓ᄒᆞᆫ 안디이곤

唯ㅅ 佛人 與ᄒᆞ 佛人ㅣㄴᆞᆯ 及 斯ㅣ 事ㄴᆡ 知ㄴᆞᄐᆞᄒᆞㅣ <舊仁 11:24>
오직 佛과 다ᄆᆞᆺ 佛괘시사 이 일ᄋᆞᆯ 아ᄅᆞ심ㅅ다

善男子ᄃᆞ 其 說白ᄅᆞㄱ 所ᄒᆞ 十四般若波羅密ㅣㄱ 三忍ᄉᆞ 地地ᄃᆞ 十 上中下ᄉᆞᆺᄂᆞㄴᆞㄱ[74] 三十忍ᄉᆞㄴᆞᄆᆞ 一切行藏 一切佛藏 不可思議 <舊仁 11:24-25>
善男子아 그 니르ᄉᆞᆷ온 밧 十四般若波羅密인 三忍여 地地아기 上中下곰 ᄒᆞᆫ 三十忍여 홈 一切行藏 一切佛藏 不可思議

(幻)化ᄒᆞ 衆生ㅣ 幻化ㄴᆡ 見ㅏㄱㅣㅅᄀᆞ 幻化ㅣ 幻化ㄴᆡ 見ㅏㄱㅣㅁ <舊仁 14:1>
(幻)化ㅅ 衆生이 幻化ᄅᆞᆯ 보ᄂᆞᆫ이며 幻化이 幻化ᄅᆞᆯ 보ᄂᆞᆫ이라

---

74) 이 때의 'ᄉᆞᆺ'은 '-씩'의 의미를 나타내는 15세기의 보조사 '-곰/옴'에 대응된다. 15세기의 '-곰/옴'과는 달리 모음 뒤에서도 /ㄱ/이 약화되지 않은 듯하다.

婆羅門ᄋᆞ 刹利ᄋᆞ 毗舍ᄋᆞ 首陀ᄋᆞᄂᆞᆯ 神我等ᄋᆞᆫ 色心ᄂᆞᆯ 名ᄒᆞ [爲]幻諦ᄋᆞᄂᆞᆫᄀᆞᆫ <舊仁 14:1-2>

婆羅門여 刹利여 毗舍여 首陀여 호의(혼의,홀의,호리의) 神我等ᄒᆞᆫ 色心을 잃아 [爲]幻諦여 호리이며

幻諦ᄂᆞᆫ 法ᆫ 佛ᄭᅴ 出世ᄋᆞ白ᄒᆞᆯᄃᆞ 無ᄂᆞᆫᄃᆞᆫᄇᆞᆫ 前ᄒᆞ十 名字 無ᄒᆞᄒᆞᆯ 義ᄂᆞᆫ 名 無ᄒᆞᄒᆞᆯᄋᆞᆫᄀᆞ <舊仁 14:2-3>

幻諦ᄉᆞ 法은 佛이 出世ᄒᆞᆯᄉᆞᆯᄫᆞᆷ 업신ᄂᆞᆺ 앒아ᄀᆡ 名字 없져 義ᄉᆞ 名 없져 ᄒᆞ며

幻法ᄋᆞ 幻化ᄋᆞᄂᆞᆫᄉᆞᆫᄀᆞ 名字 無ᄒᆞᄒᆞᆯ 體相ᄂᆞ 無ᄂᆞᆫᄒᆞᄒᆞᆯᄋᆞᆫᄀᆞ 三界ᄂᆞᆫ 名字ᄂᆞ 無ᄂᆞᆫᄒᆞᄒᆞᆯ 善惡果報ᄭᅴᄀᆞ 六道ᄂᆞᆫ 名字 無ᄂᆞᆫᄒᆞᄒᆞᆯᄋᆞᄂᆞᆫᄂᆞ <舊仁14:3-4>

幻法여 幻化여호린 名字 없져 體相 없져 ᄒᆞ며 三界ᄉᆞ 名字 없져 善惡果報인 六道ᄉᆞ 名字 없져 ᄒᆞ겨다

大王ᄒᆞᆫ 是ᄭᅴ 故ᄆᆞᆷ 佛佛ᄭᅴ [於]世十 出現ᄋᆞᄂᆞᆫᄒᆞᆫ 衆生ᄂᆞᆯ 爲ᄉᆞᄋᆞᄂᆞᆫᄃᆞᆫの ᄆᆞᆷ 故ᄂᆞ 說ᄒᆞᄉᆞᄒᆞᆷ 三界ᄋᆞ 六道ᄋᆞᄂᆞᆫᄉᆞᆫᄂᆞᆫ 名字ᄂᆞᆯ 作ᄋᆞᄂᆞᆫᄀᆞᆫᄂᆞᆯ 是ᄂᆞᆯ 名ᄒᆞ 無量名字ᄋᆞᄂᆞᆫᄀᆞᆫᄋᆞ <舊仁 14:5-6>

大王하 이 故로(ᄃᆞ로) 佛佛이 [於]누리긔 出現ᄒᆞ시하 衆生을 爲과(삼과) ᄒᆞ싫ᄃᆞ로 니ᄅᆞ곰 三界여 六道여 호릿 名字ᄅᆞᆯ 作ᄒᆞᄉᆞᆷ온ᄋᆞᆯ, 이를 名ᄒᆞ(잃아) 無量名字여 호린여

空法ᄉᆞ 四大法ᄉᆞ 心法ᄉᆞ 色法ᄉᆞ 如ᄂᆞᄋᆞᄂᆞᆫᄀᆞᆫᄭᅴ 相續假法ᄀᆞ 一 非ᄉᆞᄒᆞᄒᆞᆯ 異 非ᄉᆞᄒᆞᄒᆞᆯᄋᆞᄂᆞᆫᄂᆞ <舊仁 14:6-7>

空法과 四大法과 心法과 色法과 다ᄒᆞᆫ이며 相續假法은 一 안디져 異 안디져 ᄒᆞ겨다

一リ丨ンロ尸のㄱ 亦ンㄱ 續ン仝 不矢分 異リ丨ンロ尸のㄱ 亦ンㄱ 續ン仝 不矢ㄱのㅺ ㅈ <舊仁 14:7-8>

一이다 ᄒᆞ골 ᄃᆞᆫ 또ᄒᆞᆫ 續ᄒᆞ리 안디며 異이다 ᄒᆞ골 ᄃᆞᆫ 또ᄒᆞᆫ 續ᄒᆞ리 안딘ᄃᆞ로여

一 非矢分 異 非矢ㄷㅁ 故ㄷ 名ㅋ 續諦ㅅノ孑リ分 相待假法し 一切之ヒ 名ㅋ 相待ㅅンか 亦ンㄱ 名ㅋ 不定相待ㅅノ孑ㄱ ㅈ <舊仁 14:8-9>

一 안디며 異 안디거오 故커 잃아 續諦여 호리이며 相待假法을 一切옛 잃아 相待여 ᄒᆞ며 또ᄒᆞᆫ 잃아 不定相待여 호린여

五色 等ンㄱ 法人 有無ヒ 一切等ンㄱ 法人 如丨ンㄱリ分 <舊仁 14:9-10>

五色 等ᄒᆞᆫ(다ᄒᆞᆫ) 法과 有無人 一切等ᄒᆞᆫ 法과 다ᄒᆞᆫ이며

一切法ㄱ 皆ヒ 緣ㅺ 成ンㄱ ㅈ 假成衆生ㅅ 俱時ヒ 因果ㅅ 異時ヒ 因果ㅅ 三世ヒ 善惡ㅅノ仝ㄱ 一切之ヒ 幻化リナㄱリ皿 是し 幻諦ヒ 衆生ㅅノ孑リナ丨 <舊仁 14:10-11>

一切法은 닷 緣ᄋᆞ로 成ᄒᆞᆫ여 假成衆生여 俱時人 因果여 異時人 因果여 三世人 善惡여 호린 一切옛 幻化이견이라 是를 幻諦人 衆生여 호리이겨다

大王下 若ヒ 菩薩 上十 見ろ尸 所ㅋ 如丨ンㄱ 衆生ㄱ 幻化リ皿 皆ヒ 是リㄱ 假誑ンㄱ 矢 空中ㅋヒ 花 如丨ンナㄱリ皿 <舊仁 14:11-13>

大王하 ᄒᆞ다갓 菩薩 우희 ᄇᆞᆷ 바 다ᄒᆞᆫ 衆生은 幻化이라 닷 이는 假誑ᄒᆞᆫ 디 空中엣 花 다ᄒᆞ견이라

十住菩薩人 諸ニㄱ 佛人ヒ 五眼カ 幻諦し 如這 而ㅺ 見ニトㄱリナ

ㅣ <舊仁 14:13>
十住菩薩과 모다신 佛ᄭᅴ 五眼도 幻諦를 ᄀᆞᆮ 而ᅀᅳ 보시눈이겨다

菩薩ㅣ 衆生ᄂᆞᆯ 化ᄒᆞᄆᆞ[爲] 此 若ㅣᄂᆞᆫᄃᆡᄂᆞᆫᄃᆞᆫ <舊仁 14:14>
菩薩이 衆生을 化홇 此 다ᄒᆞ겨다 ᄒᆞ시하

此ㅣ 法ᄂᆞᆯ 說ᄃᆞᆫᄉᆞᆫᄐᆞ 時十 量 無ᄐᆞᆨ 天子ᄂᆞ 及ᄒᆞ 諸ᄀᆞ 大衆ᄂᆞᆫᄉᆞᆫ 有ᄐᆞᄂᆞᆨᄀᆞᄂᆞ <舊仁 14:14-15>
이 法을 니ᄅᆞ시릿 ᄢᅴ긔 그지 업슨 天子여 ᄆᆡᆨ 모ᄃᆞᆫ 大衆여 호리 잇견여

伏忍ᄂᆞᆫ 得ᄇᆞᆨᄀᆞᄅᆡᄉᆞᆼ 空ᄂᆞ 無生ᄂᆞᆫᄉᆞᆫᄐᆞᆫ 忍ᄂᆞᆫ [者]得ᄇᆞᆨᄀᆞᄅᆡᄉᆞᆼ 乃ᄋᆞ 至ᄅᆡ 一地ᄂᆞ 十地ᄂᆞᆫᄉᆞᆫᄐᆞᆫ 不可說ᄐᆞᆫ 德行ᄂᆞᆫᄀᆞᄇᆞᆨᄀᆞᄅᆡᄂᆞᆫㅣ <舊仁 14:15-16>
伏忍을 얻ᄂᆞ도이며 空여 無生여호릿 忍을 얻ᄂᆞ도이며 (乃ᄒᆞ사) 니르리 一地여 十地여 호릿 不可說ㅅ 德行ᄋᆞᆯ ᄒᆞᆫᄂᆞ도이겨다

## 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二諦品第四

爾ᄐᆞᆫᄂᆞᆫ 時十 波斯匿王ᄀᆞ 言ᄃᆞᆫᄑᆞ 第一義ᄐᆞᆫ 中ᄋᆞᆫ十 世諦 有ᄐᆞᆫㅣᄂᆞᆫᄅᆞᄉᆞᆼᄋᆞᆫ 不矣ㅣᄅᆞᄀᆞᄇᆞᆫᄋᆞᆫ[75] <舊仁 14:18>
엿ᄒᆞᆫ ᄢᅴ긔 波斯匿王ᄋᆞᆫ 니ᄅᆞ싫 第一義ㅅ 中아기 世諦 잇다 ᄒᆞ고오리아 안디이온ᄂᆞ아

75) '不矣ㅣᄅᆞᄀᆞᄇᆞᆫᄋᆞᆫ'는 명사구를 부정하는 '不矣'(안디)와 계사 'ㅣ-', 선어말어미 '-ᄅᆞ-'(-오-), 관형사형어미 '-ᄀᆞ'과 의존명사 'ᄇᆞᆫ'가 통합한 구성체에 의문 첨사 '-ᄋᆞ'(-아)가 통합된 것이다. 이 문장 전체는 선택의문문이다.

若ㄴ 言ニ尸 無ㄴ丨ソニろヲ尸のㄱ [者]智ㄱ 二リ亇 應ㄴソㄱ 不矢リ ロしか 若ㄴ 言ニ尸 有ㄴ丨ソニロヲ尸のㄱ [者]智ㄱ 一リ亇 應ㄴソㄱ 不矢ろ丨 <舊仁 14:18-19>

ᄒ다갓 니ᄅ싫 업짜 하시오릻 ᄃᆞᆫ 智ᄂᆞᆫ 二リ亇 應ㄴソㄱ 안디이골며 ᄒ다갓 니ᄅ싫 잇다ᄒ시고릻 ᄃᆞᆫ 智ᄂᆞᆫ 一リ亇 應ㄴソㄱ 안디오다

一リか 二リヒㄴ [之]義ㄱ 其事云何ㄴソロヒろ <舊仁 14:19-20>

一이며 二인ᄂᆞᆺ 義는 其事 [云]엇ᄒ고ᄂᆞ오

佛ㄱ 大王ラ十 告ニ尸 汝ㄱ [於]過去ㄴ 七佛十 已ミ 一リヒㄴ 義ミ 二リヒㄴ 義ミノし 問白ミハニㄱリ皿 <舊仁 14:20-21>

佛은 大王의긔 니르싫 그ᄃᆡᄂᆞᆫ 過去ㅅ 七佛긔 이믜사 一인ᄂᆞᆺ 義여 二인ᄂᆞᆺ 義여 ᄒᆞᆯ 묻ᄉᆞᆸ아기신이라

汝ㄱ 今ソㄱ 聽ノ尸 無ㄴか 我ㄱ 今ソㄱ 說ノ尸 無ㄴ白ろ丨 <舊仁 14:21>

그ᄃᆡᄂᆞᆫ 엿ᄒᆞᆫ 聽홇 업스며 나ᄂᆞᆫ 엿ᄒᆞᆫ 說홇 업ᄉᆞᆯᄇᆞ다

聽ノ尸 無ㄴか 說ノ尸 無ㄴㄱのし 卽ろ 爲一リヒㄴ 義ミソか 二リヒㄴ 義ミノヲㄱのm 故ノミ 諦聽諦聽か 善か 之し 思ソ亏 念ソ亏ソか 法し 如ᵻ 修行ソナミ 七佛ㄴ 偈リ 是 如丨ソナ丨 <舊仁14: 21-23>

聽홇 업스며 說홇 업슨 ᄃᆞᆯ 卽ろ(고도) [爲]一인ᄂᆞᆺ 義여 ᄒ며 二인ᄂᆞᆺ 義여 호린 ᄃᆞ로 [故ノ]여 諦聽諦聽이며 善か(이드며) 之し 思하져 念ᄒ져 ᄒ며 法을 ᄀᆞᆫ 修行ᄒ겨아 七佛ㅅ 偈ㅣ 이 다ᄒ겨다

相 無ㄴㄱヒㄴ 第一義ㄱ 自 無ㄴ亏 他作 無ㄴ亏ソか 因緣m 本mハ 自ラm 有ソㄱヒカ 自 無ㄴ亏 他作 無ㄴ亏ソか <舊仁 14:24-25>

相 업슨ᄂᆞᆫ 第一義ᄂᆞᆫ 제 업져 他作 업져 ᄒᆞ며 因緣으로 본ᄃᆡ록 스싀로 有ᄒᆞᆫᄂᆞ도 自 업져 他作 업져 ᄒᆞ며

法性ㄱ 本ᄆᆞᆫ 無ㅅㄱ 性ㅣㅁ 第一義ㅣᄒᆞ[76] 空ㅣᄒᆞ 如ㅣᄒᆞㅅㅏ <舊仁 14:25>
法性은 본ᄃᆡ록 無ᄒᆞᆫ 性이라 第一義이져 空이져 如이져 ᄒᆞ며

諸ㅋ 有ㅌㅣㄱ[77] 本有ㅅㅌㅌ 法ㄱ 三假ㅣ 集ㅅㄱ ᄋᆞᄆᆞㅅㅣ 假有ㅅㄴㄱㅣㅅㅏ 無ㄲ 無ㅅㄱ 矣ㅣ 諦實ㅅㄱㅌㅌ 無ㅣㅌㄱㅣㅁ <舊仁 15:1>
모ᄃᆞᆫ의 이신 本有ᄒᆞᆫᄂᆞᆫ 法은 三假이 集ᄒᆞᆫ ᄃᆞ로 ᄒᆞ아 假有ᄒᆞ견이며 無도 無ᄒᆞᆫ 디사 諦實ᄒᆞᆫᄂᆞᆫ 업시(ᄒᆞ)ᄂᆞᆫ이라

寂滅ㅣᄒᆞ 第一空ㅣᄒᆞㅅㅏ 諸ㄱ 法ㄱ 因緣ᄆᆞ 有ㅅㅏㅅㅗㄱ 有ㅅ 無ㅅㅌ 義ㅣ 是ㅣ 如ㅣㅅㄴㅣ <舊仁 15:2>
寂滅이져 第一空이져 ᄒᆞ며 모ᄃᆞᆫ 法은 因緣으로 有ᄒᆞ며 ᄒᆞ곤 有와 無왓 義이 이 다ᄒᆞ겨다

有ㅅ 無ㅅㄱ 本ᄆᆞㅅ 自ㅋ 二ㅣㄱ 矣 譬ㅇㄱ 牛ㅋ 二角 [若]ㅣㅅㅏ 照解ㅈㅓ 無二ㅅㄱㅇㅣ 見ㅏㄱㅣㅁ <舊仁 15:3>
有와 無와ᄂᆞᆫ 본ᄃᆡ록 스싀 二인디 가ᄌᆞᆯ빌 ᄃᆞᆫ 牛의(쇼의) 二角 [若]다 ᄒᆞ며 照解아기 無二혼 ᄃᆞᆯ 보눈이라

二諦ㄱ 常ㅣ 卽ㅅㄱㅌ 不矣ㅣㄴㄱㅣㅅ 解ㅅㄱㅌㅌ 心ㅈㅓ 二 不矣ㄱㅇㅣ 見ㅏㄱㅣㅁ <舊仁 15:4>

---

76) '第一義ㅣᄒᆞ'에 대해 난상에 '第一義ᄆᆞㅅㅗㄱ'으로 교정되어 있다.
77) '有ㅌㅣㄱ'은 '이신' 정도로 읽을 수 있는 것으로 '有ㅌ-'(잇-)과 함께 '이시-'도 이 당시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二諦는 덛더디 卽ᄒᆞᄂᆞ 안디이견이며 解ᄒᆞᄂᆞᆺ 마ᅀᆞᆷ아기 ᄃᆞᆯ 안디인 ᄃᆞᆯ 보눈이라

二し 求ノㄱム 得ゝろ ᄒᆞ 可ヒソㄱ 不矢ケ[78] <舊仁 15:4>
ᄃᆞᆯᄒᆞᆯ 求혼 ᄃᆡ 시러옴 짓ᄒᆞᆫ 안디며

謂ノᄉᆞ 非矢ㅂㅣ 二諦ㅂ 一ㅂㅣソ尸丁 二 非矢ㄱㅂ尸のㄱ 何ヒゝ 得ろ ᄒᆞ 可ヒソチ尸ロノチㄱのゝ <舊仁 15:5>
謂호리 안디이다 二諦이 ᄒᆞ나이다 ᄒᆞᆯ뎌 ᄃᆞᆯ 안디잃 ᄃᆞᆫ 엇뎌 시러옴 짓ᄒᆞ릷고 호린 ᄃᆞ로여.

[於]解ゝ十 常ㅂ 自ゝ 一ㅂケ 於諦ゝ十 常ㅂ 自ラゝ 二ㅂㄱㅂゝヒ ソゝ 比ㅂ 無二ソㄱのし 通達ソゝハニㄱし 眞ᄒᆞ 第一義ゝ十 入ソ去ハ ニㄱㅂゝノチナㅣ <舊仁 15:5-6>
[於]解아기 덛더디 스싀로 一이며 [於]諦아기 덛더디 스싀로 二인이 앗다 ᄒᆞ아 이 無二ᄒᆞᆫ ᄃᆞᆯ 通達ᄒᆞ아기신올, 참 第一義아기 入ᄒᆞ거기신이여 호리겨다

世諦ㄱ 幻化ゝ 起ソロㄱ 譬のㄱ 虛空ヒ 花 如ㅣソケ 影ゝ 三ᄉᆞヒ 手 ㅂ 無ノㄱ丁ノᄉᆞ 如ㅣソケソㄱゝ <舊仁 15:7>
世諦는 幻化로 起ᄒᆞ곤 가ᄌᆞᆯ빎 ᄃᆞᆫ 虛空ㅅ 곳 다ᄒᆞ며 그리메여 三ᄉᆞヒ (세몟 > 세잿) 소니 無혼뎌 호리 다ᄒᆞ며 ᄒᆞᆫ여

因緣ゝ 故ノ 誑有ソナㄱㅂケ 幻化ㅂ 幻化ヒ 衆生し 見トろ 名ゝ 幻諦ゝノチㅂケ[79] <舊仁 15:8>

---

78) '得ゝろ ᄒᆞ 可ヒソㄱ 不矢ケ'에 대해 난상에 '得ゝろ ᄒᆞ 可ヒソㄱ 不矢ㄱゝ'로 교정되어 있다.

因緣으로 [故ㄴ] 誑有ᄒᆞ견이며 幻化이 幻化ㅅ 衆生올 보누오(온) 잃아 幻諦여 호리이며

幻師ㅣ 幻法ᄂᆡ 見ᄑᆞ矣ᄂᆡᄂᆞᆫᄃᆞ 諦實ᄲᆞᄂᆞᆫᄆᆞᄀᆞ 卽ᄅᆞ 皆ᄂᆡ 無ᄂᆞᄀᆞㅣᄃᆞᄂᆡ ᄂᆞᄑᆞのᄂᆡ 名ᄃᆞ 爲諸佛ᄂᆡ 觀ᄉᆞノᄒᆞㅣᄀᆞ 菩薩ᄂᆡ 觀ᄀᆞ 亦ᄂᆞᄀᆞ 然ᄂᆡᄂᆞナㅣ <舊仁 15:9-10>

幻師이 幻法을 붋 딧ᄒᆞ야 諦實로 ᄒᆞ곤 卽ᄅᆞ 닷 無ᄒᆞ이앗다 홇 둘 잃아 [爲]諸佛ㅅ 觀여 호리이며 菩薩ㅅ 觀도 ᄯᅩᄒᆞᆫ 그럿ᄒᆞ겨다

大王ᄒᆞ 菩薩摩訶薩ᄀᆞ 於第一義ᄂᆡ 中ᄃᆞ十ᄂᆞᆫᄃᆞ 常ㅣ 二諦ᄂᆡ 照ᄂᆞᆫᄃᆞ 衆生ᄂᆡ 化ᄂᆞニトᄀᆞᄉᆞ 佛ᄉᆞ 及ㅅ 衆生ᄉᆞノ仝ᄀᆞ 一ㅣ皿 而ᄲᆞ 二 無ᄂᆡナㅣ <舊仁 15:11-12>

大王하 菩薩摩訶薩은 [於]第一義ㅅ 中아기 ᄒᆞ아 덛더디 二諦를 照ᄒᆞ야 衆生올 化ᄒᆞ시눈여 佛여 믹 衆生여 호린 하나히라 而ᄲᆞ 둘 업겨다.

何以故のᄀᆞ 衆生 空ᄂᆞᄀᆞのᄂᆡ 以ᄒᆞのᄲᆞ [故ㄴ] 得ホ 菩提空ᄂᆡ[80] 置ᄂᆞ仌 菩提空ᄂᆞᄀᆞのᄂᆡ 以ᄒᆞのᄲᆞ 故ノ 得ホ 衆生空ᄂᆡ 置ᄂᆞ仌ノᄒᆞᄀᆞのᄲᆞᄉᆞ 一切法空ᄂᆞᄀᆞのᄂᆡ 以ᄒᆞのᄲᆞ 故ノ 空ᄀᆞ 空ᄂᆞナㅣ <舊仁 15:12-14>

何以故のᄀᆞ 衆生 空ᄒᆞᆫ 둘 쁜 ᄃᆞ로 [故ㄴ] 시러곰 菩提空올 置ᄒᆞ며 菩提空ᄒᆞᆫ 둘 쁜 ᄃᆞ로 [故ㄴ] 시러곰 衆生空올 置하며 호린 ᄃᆞ로여 一切法空ᄒᆞᆫ 둘 쁜 ᄃᆞ로 [故ㄴ] 空도 空ᄒᆞ겨다

---

79) '幻化ㅣ 幻化ᄂᆡ 衆生ᄂᆡ 見ᄐᆞᄅᆞ 名ᄃᆞ 幻諦ᄉᆞノᄒᆞㅣᄀᆞ'에 대해 난상에 '幻化ᄃᆞ十ᄂᆞᆫᄃᆞ 幻化ᄂᆡ 見ᄐᆞᄅᆞ 衆生ᄒᆞノᄀᆞᄂᆡᄂᆞᆫᄉᆞ 名ᄃᆞ 幻諦ᄉᆞノᄒᆞㅣᄀᆞ'로 수정하고 있다. 이 중 '衆生ᄒᆞノᄀᆞᄂᆡᄂᆞᆫᄉᆞ'는 토가 기입된 위치로 보아 '衆ᄒᆞ 生ノᄀᆞᄂᆡ ᄂᆞᆫᄉᆞ'로 이해할 수도 있다. '幻化'는 실체가 없는 것을 지금 있는 것처럼 환술로 만들어 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80) '菩提空ᄂᆡ'에 대해 난상에 '菩提空ᄃᆞ十'로 교정되어 있다.

何以故のㄱ 般若ㄱ 無相ンカ 二諦ㄱ 虛リき 空リきンカンㄱのㅠㅅ 般若リ 空ノㄱム 於無明し 從ヒ 乃ㅔ 薩婆若ㅋ十 至リンナㅣ <舊仁 15:14-15>

何以故のㄱ 般若ᄂᆞᆫ 無相ᄒᆞ며 二諦ᄂᆞᆫ 虛이져 空이져 ᄒᆞ며 ᄒᆞᆫ ᄃᆞ로여 般若이 空혼ᄃᆡ 於無明을 좇 薩婆若아기 니르리 ᄒᆞ겨다

自相 無ヒき 他相 無ヒきンㄱのㅠ 故ノㅅ 五眼リ 成就ンムハニㄱヒヒ 時十 見ニㄱ乃 見ろ尸 所ㅋ 無ヒニカ 行ㅋ十 亦ンㄱ 不受ンき 不行ㅋ十 亦ンㄱ 不受ンき 非行非不行ㅋ十 亦ンㄱ 不受ンき 乃ㅔ 至リ 一切法ㅋ十刀 亦ンㄱ 不受ンきンニカンニウヒㅣ <舊仁 15:15-18>

自相 없져 他相 없져 ᄒᆞᆫ ᄃᆞ로[故ノ]여 五眼이 成就하거기신ᄂᆞᆺ ᄲᅳ긔 보신나 ᄇᆞᆷ 바 업시며 行아기 ᄯᅩᄒᆞᆫ 不受ᄒᆞ져 不行아기 ᄯᅩᄒᆞᆫ 不受ᄒᆞ져 非行非不行아기 ᄯᅩᄒᆞᆫ 不受ᄒᆞ져 니르리사 一切 法아기도 ᄯᅩᄒᆞᆫ 不受ᄒᆞ져 ᄒᆞ시며 ᄒᆞ심짜

菩薩リ 成佛ンㄱ 未リンヒヒ 時十 菩提し 以ㅔㅋ 煩惱 爲ㅔナ尸ㅅ 菩薩リ 成佛ンムㄱヒヒ 時十 煩惱し 以ㅋ 菩提 爲ㅔナウヒㅣ <舊仁 15:18-19>

菩薩이 成佛ᄒᆞᆷ 아니 ᄒᆞᄂᆞᆺ ᄲᅳ긔 菩提를 ᄲᅳ아 煩惱 삼결여 菩薩이 成佛ᄒᆞ건ᄂᆞᆺ ᄲᅳ긔 煩惱를 ᄲᅥ 菩提 삼겸짜

何以故のㄱ 於第一義ㅋ十 而ㅠ 二 不矢ㄱのㅠ 故ノリカ 諸ニㄱ 佛リニㄱ 如來ㅅ 乃ㅔ 至リ 一切法ㅅノ今ㄱ 如リニㄱのㅠ 故ノㅅ <舊仁 15:19-20>

何以故のㄱ [於]第一義아기 而ㅠ ᄃᆞᆯ 안딘 ᄃᆞ로[故ノ]이며 모ᄃᆞ신 佛이싫 如來여 니르리사 一切法여 호린 (眞)如이신 ᄃᆞ로[故ノ]여

佛ㅓ 白ᄒᆞ 言ᄉᆞ尸 云何ㄴᆞ 十方ㄴ 諸ᄉᆞㄱ 如來ᄉᆞ 一切菩薩ᄉᆞㅅᄌᆞ 文字ㄹ 離 不ᄉᆞᄒᆞᄂᆞᄒᆞ 而ᄆᆞ 諸ㄱ 法相ᄒᆞㅓ 行ᄂᆞᄉᆞᄀᆞㄴᆞㅏᄂᆞㅁᄅᆞᄉᆞᄅᆞ <舊仁 15:21-22>

부텻긔 ᄉᆞᆲ아 니ᄅᆞ싫 [云]엇뎌 十方ㅅ 모ᄃᆞ신 如來여 一切 菩薩여 ᄒᆞ리 文字ᄅᆞᆯ 離 안ᄃᆞᆯᄒᆞ야 而ᄆᆞ 모ᄃᆞᆫ 法相아기 行ᄒᆞ심짜 ᄒᆞ고오리오

大王ᄒᆞ 法輪ㅂㅣㅅᄀᆞのㄱ 者法本如ㅂᆞ 重誦如ㅂᆞ 授記如ㅂᆞ 不誦偈如ㅂᆞ 無問而自說如ㅂᆞ 戒經如ㅂᆞ 譬喩如ㅂᆞ 法界如ㅂᆞ 本事如ㅂᆞ 方廣如ㅂᆞ 未曾有如ㅂᆞ 論議如ㅂᆞㅅᄂㅏㅣ <舊仁 15:22-25>

大王하 法輪이다 ᄒᆞᆫ ᄃᆞᆫ [者]法本如이며 重誦如이며 授記如이며 不誦偈如이며 無問而自說如이며 戒經如이며 譬喩如이며 法界如이며 本事如이며 方廣如이며 未曾有如이며 論議如이며 ᄒᆞ겨다

是ㅂ 名味句ㄱ 音聲ㄴ 果ㅂㄱᄉᆞ 文字記句ㄱ 一切ᄋᆞㄴ 如ㅂᆞㄴㅏㅣ 若ㄴ 取ᄉᆞㄴᆞᄉᆞㄱ […] <舊仁 15:25>

이 名味句는 音聲ㅅ 果인여 文字記句는 一切옛 如이겨다 ᄒᆞ다갓 […] 取하겨린[…]

## 參考 文獻


口訣學會 編(1997),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태학사.

김두찬(1997), 「舊譯仁王經 口訣 解讀 試攷」, 『口訣硏究』 제2집.

金永萬(1986), 「舊譯仁王經의 釋讀表記 小考(I)」, 『國語學新硏究(若泉金敏洙敎授華甲紀念論文集)』, 塔出版社.

金完鎭(1980a), 「指定文字說의 定立을 위하여」, 『南廣祐博士華甲紀念論叢』, 일조각.

金完鎭(1980b), 『鄕歌解讀法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金完鎭(1985), 「特異한 音讀字 및 訓讀字에 대한 硏究」, 『東洋學』 15輯.

남권희(1994a), 「高麗本 大方廣佛華嚴經疏 卷35의 書誌學的 考察」, 1994년 여름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구두 발표.

남권희(1994b), 「高麗 釋讀口訣 資料 金光明經 卷三의 紹介」, 1994년 11월 구결학회 월례 강독회.

남권희(1996), 「高麗 口訣資料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의 書誌的 分析」, 『口訣硏究』 제1집.

남권희(1997), 「차자 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

南豊鉉(1980), 「口訣과 吐」, 『國語學』 9.

南豊鉉(1986), 「舊譯仁王經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新硏究(若泉金敏洙敎授華甲紀念)』, 塔出版社.

南豊鉉(1988), 「釋讀口訣의 起源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南豊鉉(1993a), 「高麗本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대하여」, 『東方學志』 81.

南豊鉉(1993b), 「借字表記의 詩經釋義에 대하여」, 『퇴계학연구』 제7집, 단국대학교.

南豊鉉(1995), 「朴東燮本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集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南豊鉉(1996a),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ㅁ/ㄹ'에 대한 考察」, 『口訣硏究』 제1집, 태학사.

南豊鉉(1996b), 「『金光明經』 卷三 釋讀口訣에 나타난 ㅁ의 用法에 대하여」, 『李基文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南豊鉉(1996c),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ㄴ'에 대한 考察」, 『國語學』 28.

南豊鉉(1997),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ㅅ와 ㅿ의 原字에 대하여」, 『淸凡陳泰夏敎授啓七頌壽紀念 語文學論叢』, 태학사.

南豊鉉, 沈在箕(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硏究(其一)」, 『東洋學』 第6輯.

박진호(1997), 「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

백두현(1995),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ㅭ-'와 '-ㅱ-'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 『어문론총』 29호, 경북어문학회.

백두현(1997a), 「高麗時代 口訣의 文字體系와 通時的 變遷」,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태학사.

백두현(1997b), 「高麗本 金光明經에 나타난 特異 형태에 대하여」, 『국어학 연구의 새지평』, 태학사.
서종학(1989), 「借字 '在'의 意味와 그 起源」, 『素園安潤泰博士 華甲紀念論文集』.
서종학(1995), 『吏讀의 歷史的 硏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심재기(1975), 「舊譯仁王經 上 口訣에 대하여」, 『美術資料』 18.
安秉禧(1975), 「口訣의 硏究를 위하여」, 『동양학학술회의논문집』, 성균관대학교.
安秉禧(1976), 「口訣과 漢文訓讀에 대하여」, 『震檀學報』 41.
安秉禧(1984), 「韓國語 借字表記法의 形成과 特徵」, 『제3회국제학술회의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安秉禧(1987), 「均如의 方言本 著述에 대하여」, 『國語學』 16.
이건식(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助詞에 대한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건식(1997), 「釋讀口訣의 省略表記와 難解吐의 解讀」, 『國語史硏究』, 태학사.
李東林(1982), 「舊譯仁王經의 口訣解讀을 위하여」, 『論文集』 第21輯, 동국대학교.
李丞宰(1991), 「鄕歌의 '遣只賜'와 舊譯仁王經 口訣의 'ㅁ ㅏ ㄴ'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李丞宰(1992),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李丞宰(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國語學』 23, 국어학회.
李丞宰(1995a), 「動名詞 語尾의 歷史的 變化」,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李丞宰(1995b), 「華嚴經 口訣의 狀態動詞 語幹」, 『韓日語學論叢』, 국학자료원.
李丞宰(1996),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主體敬語法 先語末語尾 '-ナ(겨)-'」, 『이기문선생 정년퇴임논총』, 신구문화사.
李丞宰(1998),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敬語法 體系」, 『國語 語彙의 基盤과 歷史』, 태학사.
이장희(1995), 「華嚴經 口訣字 'ㄕ'의 기능과 독음」, 『어문학』 56, 한국어문학회.
李賢熙(1995a), 「'-아져'와 '-良結'」,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李賢熙(1995b), 「'-ㅿ'와 '-沙'」, 『韓日語學論叢』, 국학자료원.

鄭在永(1995a),「前期中世國語의 疑問法」,『國語學』25집.
鄭在永(1995b),「'ㅅ'형 부사와 'ㄷ'형 부사」,『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鄭在永(1996a),「順讀口訣 資料 梵網經菩薩戒에 대하여」,『口訣硏究』제1집.
鄭在永(1996b),「終結語尾 '-立'에 대하여」,『震檀學報』제81호.
鄭在永(1996c),『依存名詞 '-ᄃᆞ-'의 文法化』, 국어학총서 23, 태학사.
鄭在永(1997a),「高麗時代 釋讀口訣」,『문헌과해석』통권1호.
鄭在永(1997b),「'-오-'의 변화」,『國語史硏究』, 태학사.
鄭在永(1997c),「借字表記 연구의 흐름과 방향」,『새국어생활』제7권 제4호.
鄭在永(1998),「高麗時代 {-이} 부사와 부사형」,『國語 語彙의 基盤과 歷史』, 태학사.